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22 1983년 5월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May 2, 1983

MAY 3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3개문제분야 선정

대정부건의안위한 한인대표자회의 6월중 장관출석때 발표

토론토한인사회는 소기업인의 문제, 노인들을 포함한 사회복지 문제및 문화적 문제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온타리오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8일밤 온타리오주 정부청사 맥도날드·블럭에서 모인 한인대표자회의는 (1)상기 3개항의 문제점과 요망사항을 집약 발표할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2)정식발표일은 6월중으로 한다, (3)중간점검을 위해 제2차 대표자회의를 5월19일(목) 온타리오인권옹호위(400 University Ave.)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대표로 나온 교포는 14명이었고 주관처인 온타리오인권옹호위의 킴·탠씨가 참석했다.

대표자회의는 구상회씨를 의장으로 뽑아 회의를 진행시켰다.

주관처는 참석할 수 있는 대표자의 자격을 크게 제한하거나 초대장을 발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날 종교, 사회, 경제단체, 학교등의 대표로 나온 교포들은 자진 참석한 것이다.

요망사항 발표때는 온타리오정부 내각의 인종관계위원회(Race Relations Committee) 위원장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창과 프랭크·드레 사회봉사부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윌렴·데이비스 수상도 참석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한인대표자들은 문제있는 분야로 취업, 교육, 언론, 여성, 이민등 9개 분야를 토의했으나 건의안의 효과를 고려, 문제분야를 3개항으로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문화적 문제(고용·교육포함)는 구상회(의학박사)·유재신(철학박사·토론토대학교)·윤주석(온타리오주대학동창회장)씨, 사회복지 문제(노인복지·여성 포함)는 이상철 목사(한인연합교회)·김창열(코리안YMCA총무)·조성준(사회사업가·스카보로교육위)씨가, 소기업문제는 실업인협회(벤커협회및 맥스협회와 상의)가 담당키로 했다.

다운타운 할리데이·인에서 있을 발표때 각 항목별 발표시간은 10~15분이며 발표가 모두 끝난후 그룹별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발표는 영어로 하나 그룹토의는 한국말로 진행했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영어로 요약 설명된다.

교민단체는 분야별 책임자에게 자기 의견을 사전에 통고할 수 있으며 3개항 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단체는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 발표회때 주관처에 제출할 수 있다.

"무시되기 쉬운 소수민족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수립에 참고하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같은 주정부프로그램은 정치적 사탕발림은 아니라고 담당 탠씨는 말했다.

그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런 배려는 "데이비스수상이 연방보수당 당수에 출마하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내각의 인종위원회는 2년전 창설됐고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이제까지 필립핀및 중국계 회합이 끝났다.

구회장은 "온타리오주정부의 의도를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당신들은 이용하지 않더라"라는 구실을 정부에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소수민족의 요망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약 40개 단체에서 150명 대표가 나온 중국계 회합은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신문이나 TV가 중국인을 하인이나 우스꽝스럽게 취급하는 언론문제, 교육및 사회복지등 4개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인대표자 회의에서 김태진 한인회이사장(오른쪽서 두번째)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선겸 실협회장· 김창열 YMCA총무·정철기 민중신문사장·조성준 사회사업가·이인용 노스욕한글학교장·이건길 한인합창단총무·윤주석 온타리오대학동창회장

◆회의 주관처인 온타리오인권옹호위의 담당 킴·탠씨(중국계)(왼쪽), 구상회의장.

1200대 돌파한 다우 존스

월·스트릿사상 최초…경기청신호

(뉴욕)오래동안 계속되던 불경기가 끝이 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전망이 봄소식과 함께 들려오고 있는 이때, 미국의 주요 증권지수인 다우존스가 월스트릿 역사상 최초로 1200을 넘어섰다.

다우존스는 세계의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의 Stock Exchange)가 집계하는 IBM, 엑손등 미국 30개 톱 재벌회사 주식의 평균치이며 이 지수는 세계의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이다.

다우존스는 82년8월에 788.05, 같은 8월에 901.31, 82년10월에 1 036.98을 넘어섰다. 83년1월 1,092.35, 83년3월 1 145.90에서 83년 4월27일 드디어 1 208.40을 넘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부쉬부통령 예방

방미중인 이범석외무

(워싱턴28일=연합)이범석 외무부장관은 27일 조지·부쉬 미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우의에 감사를 표했다.

부쉬부통령은 양국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레이건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유병현 주미대사, 폴·월포비취 극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및 돈·그렉 부통령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진』유경희 귀국

모국대회 참가차

미스코리아 진 유경희양은 모국대회 참가차 29일 하오5시20분 뉴욕경유 KAL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서울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모국대회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유양등 해외 대표들은 모국의 도, 서울시·부산시 대표가 참가하는 본선에 진출한다.

참가미녀들은 약 1주일간 합숙하면서 걷기, 말하기등을 훈련받고 판문점등을 관광한다.

◀금주의 행사▶

— 1982년5월2일(월)~8일(일) —

◆5월2일(월) 하오 7시~10시
이민여성을 위한 적응프로 개강
곳: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enter
(1991 Dufferin St.×Rogers Rd. Tor.)
연락처: 653-2223(Ministry of Citizenship & Culture)

◆5일(목)하오6시 한인아이스하키협회 주최
모국체전파견준비·하기훈련생 모집
곳: West Wood Arena(Hwy 27×Finch)
연락처: 731-0460·977-6380

◆6일(금) 하오8시
한인탁구협회 임원·이사회
곳: 한국관(628 Bloor St. W. Tor.)

◆7일(일)~8일(일) 캐나다한인학자회 모임
곳: 몬트리얼 할리데이·인 호텔
(1415 St.Hubert, Montreal Tel: 842-4881)

◆7일(일) 상오10시
해밀톤 한인골프대회
곳: Flamborough Hills Golf Club(Tel: 627-1743)
연락처: 298-3584(이기훈)·639-3139(이창회)

TTC 노선연장 구체화

지하철승객 폭주 대비위해

앞으로 계속 증가될 지하철승객 인파를 감안하여 노선연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메트로·토론토시의회는 27일 TTC에 대해 2개 노선연장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할 것을 승인했다.

2개의 연장안중 하나는 현행 유니온·스테이션에서 블로어(Bloor)-댄포스(Danforth)에 이르는 구원선(Relief line) 설치이고 또 하나는 영·스트릿(Yonge St.)에서 세퍼드·애비뉴를 통과해 스카보로 타운센타에 이르는 연장선 건설이다.

이 연구는 주정부가 발표한 기존 동서횡단선 건설(피커링 - 오크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TTC당국자는 이 계획이 지금 추진된다 해도 완공까지는 약 10~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의 연구는 온타리오정부, 토론토시, TTC가 합동으로 착수하게 되며 18개월간 $180만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범인은 부인

을지병원 독살사건

(서울본사전화)서울 을지병원 염필수씨(37)의 우유독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밤 독살된 염씨의 부인 김연주씨(39)를 진범으로 검거, 살인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범인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 염씨명의로 보험금 6천만원을 타 빚4천만원을 갚으려 했다」고 말했다.

NWA 첫 취항

시카고—서울직행

시카고와 서울을 잇는 최초의 직행항공편 노스웨스트에어라인(NWA) 점보여객기가 24일 첫 취항했다.

이날 하오3시35분 오헤어공항을 출발한 005편 보잉747기는 미국의 캘리포녀북부와 일본상공을 지나 서울까지 7천2백34마일을 13시간만에 비행, 다음날인 25일 하오7시45분(현지시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8.15원
CN$1.00 = US81.59센트
금(런던) = $525.17
은(토론토) = $14.68/oz.

오늘의 예금금리(4. 6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R)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재소재업체
오메가시계 45%~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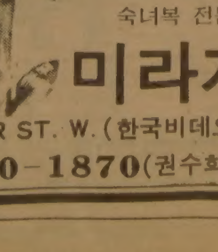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섭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둘+셋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한일은행 카네이션적금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증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임.
높은이자율 13.97%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416) 865-0456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Mirage Boutique
어머니날 대매출
50% SALE
5월2일(월)부터 14일(토)까지

숙녀복 전문집
미라지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옆)
☎: 530-1870(권수희)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1A5
P

금주 한국소개행사 풍성

외교관주최 자선바자회에 가야금독주

(오타와)5월의 봄을 재촉하는 금주에는 한국을 캐네디언에게 소개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풍성하다.

오타와주재 한국대사관의 박영길 공보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35분부터 「Radio Canada-French」 방송에서는 한국의 가야금 독주를 소개했다.

5월6일 오전 10시 CTV에서는 모닝·메가진(Morning Magazine) 시간에 교민 최용자씨가 출연, 한국음식을 소개한다. 5월3일 녹화예정.

5월6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타와의 시빅·센타에서는 외교단자선바자회인 「International Y Fair」에 한국대사관에서는 가야금독주, 의상소개, 토산품판매등을 할 계획이다. 이 바자회에는 오타와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중 40여개국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오타와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인 「시티즌」지는 한국의상과 악기등을 금주내로 소개할 계획으로 이미 인터뷰를 마쳤다.

이영현회장 재선

캐나다무역인협회

◆이영현 회장

재캐나다 무역인협회는 28일밤 8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현 회장을 7대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회장은 임원진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블루어의 크링톤하우스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이어 금년도의 예산심의와 사업계획에 관해 토의를 가졌다.

금년도 주요사업중의 하나로 무역인협회는 오는 6월 중순경 무역을 하고자 하는 교민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인협회는 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 30여명은 메트로·토론토에 거주하는 무역인이다.

교민가게에 강도

인명피해없이 현금뺏겨

교민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돈을 털어 도주한 사건이 28일 발생했다.

파머시·에비뉴(Pharmacy Avenue) 445번지에 소재한 맥스·밀크·스토어(Mac's Milk Store)의 종업원인 박처희(25세)씨는 이날 새벽 4시25분경 4명의 범인이 가게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메트로경찰의 사건기록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스타킹을 뒤집어 쓴 남자1명이 카운터로 다가와 박씨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계산기에 들어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손에 나무몽둥이를 든 나머지 3명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다.

박씨가 범인의 요구에 응하자 4명은 급히 달아나 버렸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

다민족·이중언어화 되고 종교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81년 인구조사 분석결과

(오타와)캐나다는 점차로 다민족화와 영불 2중언어화 되어가고 있는 동시에 비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캐나다통계국(Canada Statistics)이 27일 밝힌 81년도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해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또하나 관심을 끄는것은 지난 10년동안 캐나다인은 그간의 인프레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부유해졌다는 사실이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종교와 언어 분야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국민의 수가 지난 10년동안에 90%가 증가, 전인구의 7% 이상인 18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비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은 BC주로 21.5%에 달했으며 가장 적은 주는 뉴파운드랜드로 1%였다.

종파별로 10년동안에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인 것은 불교로 223%가 증가, 51,995명에 달했으며 그 이유는 아시아 불교국가로부터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기독교 종파중에서는 펜티코스트(Pentecost)교 신자가 54% 증가, 338,790명으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영국성공회 신자는 240만명으로 오히려 3% 줄어들었다.

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국민의 수는 10년동안에 27%가 증가한 약 370만명에 달했다.

영·불어중 불어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한 캐네디언의 수는 390만명에서 약 400만명으로 늘어났으나 비율은 10년전의 18%에서 16.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인구의 68.2%가 가정에서 주로 영어를, 24.6%가 불어를, 나머지 7.2%가 기타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언어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태리어로 364,575명이 가정에서 이태리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트닉 언어중 가장 높은 신장을 보인것은 인도-파키스탄어(311.4% 증가)와 스페인어(190.5% 증가)였다.

외국에서 태어난 캐나다거주자의 인구는 지난 10년동안에 17.3% 증가, 약 390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인구의 16.1%에 해당한다.

해외출생 거주자중 유럽태생은 79.7%에서 66.9%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태생은 228%가 증가한 543,495명에 달했다.

지난 10년동안 메트로·토론토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사용 세대수가 10년동안에 159,815세대에서 46%가 증가, 233,460세대가 되었다.

▲영국계 캐네디언 가정은 1970년도에 149,500세대에서 80년도에는 139,500으로 줄었다.

▲다음으로 많은 타민족은 이탈리언으로 전시민의 10%에 달하는 30만명으로 추산되었다. (70년: 14만명)

▲그외에 중국인: 89,590명, 독일인: 82,925명, 프랑스인: 74,800명, 우크레니안: 50,700명등이며 기타 아시아인: 155,000명, 인디안원주민: 11,375명으로 나타났다.

▲10년간에 파키스탄과 인도출신의 이민자는 188% 증가했으며 중국인과 레바논인, 기타 아시아계의 증가는 144%에 달했다.

▲동기간 영국계 출신의 인구는 오히려 44.6%에서 40.2%로 줄었으며 불란서계도 역시 28.7%에서 26.7%로 줄어들었다.

▲전체소수민족(Ethnic Group)의 분포는 전인구의 7.6%이다.

▲현재 토론토 인구중 캐나다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44.5%를 차지하는 1,132,640명이다.

▲결혼한 부부는 20년전인 1960년에 비해 6% 증가(40,000쌍), 총 692,815쌍이다.

이혼한 부부는 92,575쌍으로 집계됐다.

▲토론토의 평균 가족수는 세대당 3.2명으로 70년보다 오히려 0.2% 감소됐으며, 가정당 자녀수도 0.2% 줄어든 1.5명선이다.

▲종교분포로는 캐톨릭: 1,074,460명, 개신교: 1,297,050명, 유태교: 123,730명, 정교회및 비기독교인: 95,385명이며 한편 불교는 10년안에 가장 높은 성장율인 223%를 기록해 51,995명에 달했다.

5월부터 도로보수공사

하이웨이 401 일부구간 야간통행 폐쇄

5월2일부터 하이웨이 401의 더퍼린 스트릿 웨스트쪽이 야간통행제한된다.

앞으로 약 11주간 보수·확장공사를 할 하이웨이 401은 이스트-웨스트 양쪽다 6개선에서 3개선으로 가장 교통량이 적은 야간중에만 폐쇄되어 통행차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온타리오주 교통부는 밝혔다.

하이웨이 401은 킬과 더퍼린사이에서 가장 붐비어 매일 총 233,400대의 차량이 지나가며(82년 통계), 이중 75%이상이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사이에 통행한다는 것이 교통부의 통계이다.

이밖에 하이웨이 5와 하이웨이 427 북쪽이 5월1일부터 약 한달간 하오7시부터 폐쇄되며 퀸·일리자베스웨이 동쪽도 2일부터 약 3주간 폐쇄된다.

그외에 도로보수공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트로·토론토-•배서스트스트릿(프론트스트릿에서 퀸)

•블루어스트릿(제인에서 이슬링턴)

•더퍼린스트릿(에글링턴에서 로렌스)

◆토론토-•듀플렉스·애비뉴(콜렌케언에서 글렌비유)

•제라드스트릿 이스트(콕스웰에서 할리웃·크레센트)

•퀸스트릿 이스트(웃바인에서 위네바(Wineva)

◆스카보로-•로렌스끝에서 리지웃 로드에 새 노선 신설

•미드랜드는 사우스쉴즈에서 패스모어까지 4개노선 폭으로 확대된다.

•프로그레스·애비뉴를 맥코완·로드위로 확대한다.

◆이토비콕-•핀치애비뉴를 험버라인·드라이브에서 험버 서쪽까지 확대, 험버리버위로 내년경 다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웨이 애비뉴를 인터내셔널 블루바드에서 메리디안 로드 남쪽까지로 확대한다.(이미 미미코·크릭위로 다리가 설치돼 있다.)

•스틸즈·애비뉴를 시그날·힐·블루바드에서 하이웨이 50까지 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욕-•스칼렛로드는 세인트·클레어에서 험버·리버까지 4개노선폭으로 확대한다.

•46년된 블랙크릭 다리는 7월부터 12월까지 폐쇄된다.

이밖에 노스욕, 이스트욕 산업지역은 물론 주택지역도 재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어린이 참가

쇼햄 국제페스티발

27일 쇼햄국민학교(34 쇼햄·드라이브) 체육관에서 개최된 국제페스티발에 한국어린이들이 참석, 많은 관중과 학부모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저녁7시부터 9시까지 8개국 어린이들이 나와 재능을 보인 이날의 페스티발에는 쇼햄한글학교(교장 박승낙) 어린이 10명이 나와 아리랑과 코리언·알파벳(Korean Alphabet)을 열창했다. 코리언·알파벳은 씨알한교교장이며 음악박사인 유희자씨가 작곡한 노래이다.

쇼햄국민학교 연례행사인 국제페스티발은 금년이 3회째로 한국어린이 외에도 힌디, 스페니시, 웨스트인디언, 유고슬라비안, 멕시칸, 아라비안, 북미인디언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제에는 특기발표 외에도 학부모들이 각기 자기나라의 고유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누어 먹는 "팟·럭(Pot·Luck)"디너도 곁들여져 각국인들에게 한국의 고유음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제 페스티발에 참가한 쇼햄한글학교 어린이들.

주택산업 급속회복

메트로외곽 미시사가일대

메트로·토론토에 서쪽으로 접한 미시사가의 주택산업이 급속도로 회복되고있는 가운데 건축가격면에서 사상기록적인 81년도의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미시사가시는 금년 1·4분기중에 주택건설이 가격면에서 5,600만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81년보다 불과 1,100만달러밖에 뒤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헤이즐·멕카린 미시사가시장은 경기가 호전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융자및 대부가 금리하락과 함께 주택산업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作

죄악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23>

헤로인 ⑱

"X란 놈은 한국인일수도 있읍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마인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몇 마디 물어본 다음 곧 그를 풀어줬다. 그를 붙잡고 이야기해본들 시간낭비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방 두개는 감식반에 맡겨졌다. 거기서 몇개의 지문이 채취되었다. 일본인 시모다와 중국여인수지, 그리고 가방을 발견했던 마을사람, 그밖에 두개의 지문이 더있었다. 그 나머지 지문 두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 어느것도 경찰이 확보하고있는 X의 지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인은 X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것을 느꼈다.

『놈은 쉽게 지문을 남길 놈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김형사는 피곤한듯 눈을 감았다.

『너무 그쪽으로 몰고가지마.』

『놈은 완벽하게 도주했읍니다. 지금쯤은 안전한곳에 숨었을 지도 모릅니다. 6킬로의 무게라면 아주 간단하게 운반할 수가 있읍니다. 가방 같은데 넣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의하면 범인은 한국 말을 잘 한다고했어. 한국인이 틀림없을 정도로…. 그런데 국제적인 킬러가 그렇게 한국 말을 완벽하게 구사할수 있을까? X는 한국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의 국적을 아는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따라서 한국인일수도 있읍니다.』

『한국인이라고? 아니야. 절대 그럴리가 없어.』

김형사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마인은 한 마디 덧붙였다.

『범인은 최신 소음권총을 가지고있읍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X라면 그것을 가질만합니다.』

『고집도 엔간하군. 두고보면 알겠지.』

朴男 그림

수사진은 대폭 강화되었다. 여기저기서 검문검색이 실시되는등 긴장이 고조되고있었다. 그러나 X도, 헤로인6킬로그램을 가지고 사라진 범인도 종적이 묘연하기만했다. 이틈뒤, 그날은 몹시 추웠다. 거리에는 삭풍이 몰아치고있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온 한 중년의 사업가는 밤새 이상한 냄새에 시달리다가 아침 일찍 눈을떴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하룻밤 돈을 주고산 여자였다. 어제밤 몹시 심하게 시달렸던지 세상모르고 잠들어있었다.

『이상한데…』

중얼거리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온 그는 다시 코를 킁킁거리면서 방안을 돌아다녀보았다.

어제 들어왔을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방안에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술김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투숙했던 것인데 이제는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냄새를 없애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몰려들어오면서 커튼을 휘저었다. 시트로 허리만가린채 잠들어있던 여자가 추운지 몸을 움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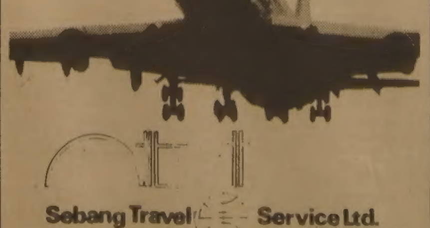
『이봐, 무슨 냄새 안나?』

『아이, 추워요. 문닫아요.』

『냄새 안 나느냐고?』

『냄새는 무슨 냄새요.』

『이런제기랄…콧구멍이막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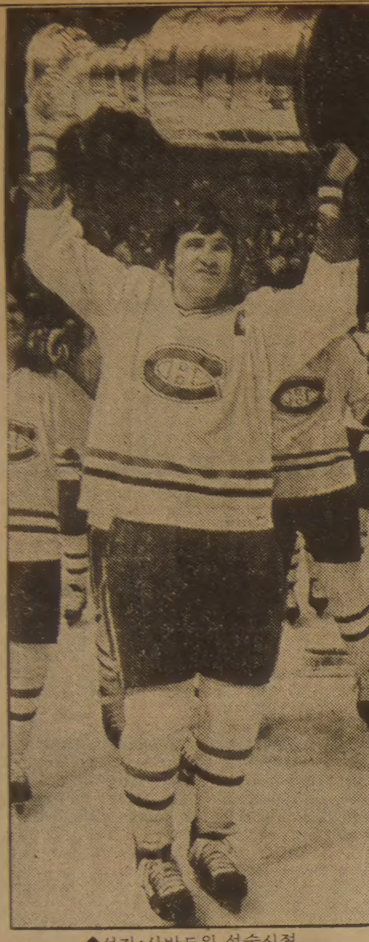
세방여행사
IATA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승빈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삼복식품만이 싸게팝니다!

선학쌀 50Lb
Spec $11.95
Reg $13.95
〈50불이상 사셔야 합니다〉
▶ 시내 어디서나 30분이면 오실수 있고 무료주차할 수 있읍니다.
▶ 주7일 영업합니다.
Finch av. GAS Parking Zeisel Weston rd.
2437 FINCH AVE. W. WILLOWDALE, ONT.
☎743-8270

개 업 인 사
CRYSTAL'S
FLOWER MART
제가 금번 블루어×스파다이나 부근에 꽃가게를 OPEN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나시는 길에 1차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동호 올림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
☆각종행사및 모임에 주문배달함.
영업시간 : 월~토 오전9시~밤11시
Walmer Spadina Subway Bloor St. W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서지·사바드의 선수시절

몬트리얼·캐네디언팀 새 감독에

15년간 현역선수생활한 서지·사바드

몬트리얼·캐네디언 아이스하키팀의 새로운 감독이 탄생했다.

그는 15년간 현역 선수생활을 한 가운데 13년을 캐네디언에 소속했으며 79년까지 몬트리얼팀에서 주장을 역임하면서 스탠리컵 4년연속 우승과 그외 4회에 걸친 우승에 공을 세웠던 37세의 서지·사바드(Serge Savard)씨.

그는 은퇴후 2년간 위니펙 젯스(Jets)팀의 코취를 역임하면서 점차적으로 명성을 굳혀 왔는데 2주전 불화로 갑자기 해임된 전감독 어빙·그룬드만씨의 후임으로 발탁되었다.

사바드씨는 3년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키전문가들은 신임 사바드감독이 그의 경력을 살려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3진 세계기록 수립

아스트로야구팀의 노린·라이언

(몬트리얼)내셔날리그 소속 휴스턴·아스트로스(Astros)팀의 우완투수인 노란·라이언(Nolan Ryan)선수가 27일 몬트리얼 엑스포즈와의 대전중 프로야구의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이날 3,509개째의 삼진(Strikeout)을 기록해 1927년 월터·존슨 선수가 세운 기록을 갱신하고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 16년째 선수생활에 돌입한 라이언선수는 금년 시즌에 나오기전에 3,494개의 3진을 기록하고 있어 기록갱신을 기대해 왔다.

그는 어깨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콘디션조절을 하지못해 시즌 오픈 10일째까지 7개의 삼진밖에 내지 못하다가 그후 조금씩 회복해 17일 경기에서 3개, 27일 엑스포즈와의 대결에서 5개를 얻어내 극적인 기록을 수립한 것.

36세인 라이언 선수는 앞으로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필라델피아 필리스(Phlillies)의 스티브·칼튼 선수도 3,480개의 기록으로 라이언 선수를 뒤쫓고 있다.

교 민 동 정

▲서만수(전 「한인회보」 편집장) = "호사다마"로 부인이 첫아기를 낳자, 모국(대전)에서 장인 김영준씨(67)가 지난달 하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해산직후의 딸에게 타격이 클까봐 일부러 비보를 늦게 전했다고.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흥행 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연재소설〉

혼돈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차가 복잡한 시내를 달리다 몰골이 괴상한 집앞에 섰다.

「여깁니다. 아가씨가 살 집이예요.」

집이 너무 낡고 이상해서 머뭇거렸다.

「별로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인데 다운타운의 집은 다 이렇습니다.」

그는 내 짐을 하나 들고 앞장을 섰다. 유난스럽게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서니 1과 2의 숫자가 박힌 퇴색한 두개의 문이 있었다. 그는 2의 숫자가 박힌 문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리고, 한 아가씨가 얼굴을 내밀며 싱긋 웃었다.

「어머, 누구시라고. 웬일이세요?」

「친구분을 한분 모시고 왔읍니다.」

「저분이 한국에서 오신다던 그 아가씨예요?」

그녀는 나를 슬쩍 훑어 보았다.

「어젯밤에 오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영수씨도 잠깐 들어왔다 가시죠.」

나는 고개를 꾸벅 숙여 답례를 하고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방은 대부분 지저분하게 마련인데 예상외로 집안은 깨끗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짐은 아예 쓰일 방에다 들여놓을까요?」

그녀가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방안에는 침대 하나만 덜렁 놓여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없던 허전함이 방안에 서려 있는 것같았다. 사면을 차단하고 있는 하얀 색깔의 벽이 더욱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

짐을 방안에 넣어두고 부엌겸 응접실로 나온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금방 친한 사이가 되어 허물 없는 얘기를 주고 받았다.

「애자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 어느 뒷골목 전세방일 거예요.」

「그럼, 서울 뒷골목구 전세동이네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던 사장아들 영수도 알고 보니 꽤나 재미있는 청년이었다.

「저는 말씀도 안하시고 무뚝뚝하셔서 목석인줄 알았는데, 저 때문에 화가 나셨었나 보지요?」

「아니예요. 제가 왜 미인을 보고 화를 냅니까? 가정환경이 가끔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어머! 영수씨가 왜 목석이예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타번에서 일어나는 궂은 일은 다 도맡아서 처리해 주는걸요.」

앞으로 같이 살며 같이 일하게될 유리라는 아가씨는 정색을 했다.

「타번이라뇨?」

「술집을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럼, 영수씨도 거기서 일을 하나요?」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별로 달갑지 않은 대답을 했다.

「영수씨는? 심부름이 뭐예요. 토론토에서 제일 규모가 큰 타번의 지배인을 하시면서.」

유리의 치켜 세우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쾌활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것을 보면 불만이나 열등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같았다. 학생의 나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가 아버지 밑에서 지배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부모에 대해 불만이 많은 점등은 김사장을 공격목표의 제1로 잡고 있는 나에게 훌륭한 이용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공격을 앞두고 요새를 점령한 병사처럼 승리의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며 반쯤 남아있는 커피를 팔깍 마셨다.

「사장님의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이만 가봐야겠읍니다. 애자씨는 오늘이 처음이고, 광고를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을테니까 화장을 잘 하시고, 여섯시까지는 나오시도록 하세요. 잠깐 밴드와 호흡도 맞추어 봐야 할테니까요. 유리씨가 잘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그는 지배인답게 세심한 주의를 주고 물러갔다. (계속)

새집으로 옮겨간 애자는
승리의 순간을 그리며…

감사말씀

지난 24일 낮 영면하신 어머니 김정수씨는 27일 낮 세인트·폴성당에서 최규식신부 집전의 고별미사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읍니다.

참으로 바쁜 일정을 쪼개어 장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일일히 방문인사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지상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급작히 떠나신 어머니의 죽음은 이제 인간적 슬픔을 떠나, 보다 진한 인생의 믿음과 과 이웃에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성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이루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격려로서 저희 유가족을 이끌어주신 여러교민과 친지들께 하나님의 보다 큰 은총을 기원합니다.

유가족 대표
조미래 드림

장학생선발공고

지·덕·체를 겸비하려는 개인적인 수양의 길을 격려하고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위한 이같은 계속적인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완인태권무도회는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자 격 1)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좋은 학생. (평균B학점이상)
2)1년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현역수련생으로 앞으로 적어도 1년이상 소속도장에서 수련을 계속할 학생.
2. 모 집 인 원 1)1~4학년생 한국인4명, 외국인3명.
2)5~8학년생 한국인2명, 외국인2명. 총인원11명
3. 장학금지급액 1)1~4학년생 개인당 $100
2)5~8학년생 개인당 $150 총지급액 $1,300
4. 제 출 서 류 1)원서 (본회에서 요구에 따라 우송할 수 있음)
2)현학년의 성적증명서
3)태권도 수련기록표 및 소속도장사범의 추천서
4)작문(1~2학년 150자, 3~4학년 300자, 5~8학년 500자)
5. 서류제출마감 1983년 6월10일까지 본회에 도착시킬것.
6 발표 및 지급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1983년 6월24일(토요일)에 지급함.
7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1) 2283 Yonge St, Toronto M4P 2C8 Tel: 483-4002
2) 1865 Lawrence Ave, E, Scarborough M1R 2Y3 Tel: 759-2500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무도회

⊙선명한 화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선미광고만이 한국에서…
직수입 비데오테프 1300개
⊙연속극 TV문학 ⊙영화 ⊙쇼….
(2시간 드라마)마지막 겨울, 첫사랑, 강노인의 미소, 조가피, 우덤, 산울림, 노을, 독짓는 늙은이, 목석부인, 조춘, 역마, 강촌, 도사공, 도시 사냥꾼, 산골나그네, 잔인한 도시, 어금니 한개, 손, 불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단독강화, 산불, 보물소동, 취국, 가면무도회, 금시조, 산상에 서다, 마 청산댁, 들녁, 소장수, 하루방, 사람의 아들, 고향, 무명, 겨울 꽃, 10F, 심마니 역마, 김약국의 딸들, 돌의 초상, 파도, 형제, 낙엽, 배따라기, 청산댁불타는 다리, 갈대를 기르는 땅, 묵시의 바다, 갯마을, 과부, 모밀꽃 필 무렵, 안개강, 감비천 불빛이, 창부타령, 나닷가 소년, 도사고, 막차로 온 손님, 열녀문, 겨울 꽃, 어느 여름방학, 안중일기, 삼포로 가는 길, 착하고 아름답게…70여편
1 기독교: 저 좋은 곳을 향하여, 사람들의 아들,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시리소서, 하늘나라에, 목자
2 불 교: 등신불, 석남사, 종, 무명, 다정다한, 초파일특집, 팔만대장경
3 기 타: 일대일, 여감방, 북경열차, 흑녀, 7인의 협객, 하늘나라 엄마별과, 연산군, 로멘스, 복례기, 마마, 부산항, 머저리들의 건 겨울, 순 악질 여사, 별들의 고향, 춘향전, 청춘, 여수407, 미워도 다시한번, 밤이면 내리는 비, 일상, 흑녀, 벌레먹은 장미, 하늘나라, 터질듯한 이 가슴, 아기별, 대결투, 0점하의 새끼들, 독사, 초분, 영원히 가슴에 50여편
산유화, 풍운, 해빙, 미련, 어제 그리고 내일, 북청물장수, 개국, 세자매, 약속의 땅, 관광도, 사랑의 맨, 고백, 친구야 친구, 못잊어, 아내, 서궁마마, 보통사람들, 시장사람…등20여편
영11, 쇼쇼쇼, 쇼2000, 여의도 1번지, 특집, 젊음의 행진, 우리들의 애창곡, 특집 드라마, 농촌드라마, 영어교육, 아동프로 300여편
⊙지방대리점 문의환영
미도파 3 FLOOR
454 BLOOR ST.W. TORONTO B 531-6430 R 363-6523

골프시즌이 돌아왔다

새로운장비 선보여

골프화는 고무스파이크가 인기

봄과 함께 골프시즌이 열렸다.

매년 골프시즌 오픈과 함께 골퍼들의 흥미를 돋구는 새로운 장비들이 선을 보인다.

금년 봄에도 예외없이 새로운 장비가 등장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골프화다.

특히 과거의 스틸·스파이크 대신 고무 스파이크(rubber-spiked)가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고무 스파이크로는 덱스타(Dexter), 에토닉(Etonic), 스튜버트(Stuburt), 스타일로(Stylo), 월보린(Wolverine), 로우링즈(Rawlings), 엔디콧·존슨(Endicott Johnson)등의 상표가 시중에 나돈다.

골프화는 윗부분에 가죽을 대고 고무창을 깔아 간편한 스타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영국제 중에서 일반적으로 몰드(molded)를 댄 스타일이 많다.

고무로 된 골프화는 약 4년전부터 시중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에 도입, 보급되었다.

골프화의 가격은 대개 $40에서 $85에 걸쳐 다양하게 보급되어있다.

고무형 골프화는 가정에서나 자동차, 골프클럽, 골프코스 모두에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골프채도 역시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드(wood)에다 폴리우레테인(polyurethane) 폼을 붙여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메탈우드(metalwood)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AMF는 최근 시장에 메탈우드 개발품을 출반했으며 노스웨스턴(Northwestern)과 맥그리거(MacGregor), 스팔딩(Spalding)에서도 메탈우드 골프채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학적실험에 의하면 2가지종류를비교한결과 볼을 쳐날리는 거리상에는 별차이가 없으나 메탈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메탈을 사용할 때 우드보다 직선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골퍼들은 양쪽이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메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토론토 주변엔 수많은 골프 코스가 있으며 이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세미프라이빗(Semi-Private):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프라이빗(Private):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

◉퍼브릭(Public): 일반인들이 그린피(fee)만 내면 된다.

◉파 3(Par 3): 18홀이 구비되고 있으나 Par 3코스로서 일반인만 사용한다.

◉익제큐티브(Executive): 짧은 18홀이나 9홀 55~65파이다. 일반에게 공개된다.

◉골프센터(Golf Centers): 드라이빙 렌지(driving ranges), 미네쳐골프코스, 익제큐티브등을 혼합한 시설이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

프로골퍼 老將 파머의 회열 프로골프 노장 아놀드·파머가 지난주 매스터즈골프 첫날 17번홀에서 멋지게 퍼팅을 성공시켜 버디를 잡고 기뻐하는 모습。그는 이 대회서 4번 우승했으나 최근엔 성적이 좋지않았다。

Beauwood CALIFORNIA INC.

TORONTO근교 BEAUWOOD을 파는 GOLF장

◎BEAUWOOD PSS(Pefect Sweet Spot)CLUB을 원하시는 분은 (Woods Irons Putters) GOLF장들을 이용해 주십시요

◎BEAUWOOD CLUB에 대한 질문이나 CLUB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는 분은 저의 회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Canadian Distributor:
J. C. GOLF Enterprise Ltd.
2779 Thamesgat e Dr.
Missi. Ont. L4X 1G5
(416)671—4555
정정홍(JOHN CHEUNG)

Beauwood CALIFORNIA INC.

GOLF COURSE	HEAD PRO	TELEPHONE	AREA
Aurora Highlands G.C.	Laurie Buckland	773-6400	Aurora
Board of Trade	Murry Tucker	851-2811	Woodbridge
Brampton G.C.	John Henrick	457-4443	Brampton
Briars Golf Club	Derek Halfyard	722-3772	Jackson's Point
Burford Golf Club	Tom Tremblay	(519)-753-6388	Burford
Borden Golf Club	Albert Buckle	(705) 424-1711	Borden
Casltlemore C.C.	Ken Venning	792-3636	Brampton
Carrying Place G.C.	Paul Dove	727-5711	Kettleby
Canard Valley G.C.	Harold Hambleton	(519) 726-6781	MacGregor
Camden Braes G & CC	Herbert Wolfam	386-3684	Odessa
Credit Valley G.C.	Michael Schurman	275-2512	Mississauga
Cedarbare G.C.	Al Paterson	293-6702	Milliken
Couchiching G.C.	Ken Varty	(705) 326-2861	Orillia
Chinguacousy G. C.	Gar Vassey	457-4647	Inglewood
Conestoga G. C.	Ron Silver	(519)-664-2851	Conestoga
Donalda G.C.	Bob Ure	447-5570	Don Mills
Dundas Valley G. C.	Dave Drewitt	628-6738	Dundas
Doon Valley G.C.	Tim Skidanchuk	(519) 653-1577	Kitchener
Deerhurst	Paul Kennedy	(705) 789-7878	Huntsville
Essex Golf Club	Don Harrison	(519) 734-7816	Windsor
Elmira Golf Club	Herb Rundy	(519) 669-3795	Elmira
Glen Abbey Golf Club	Alan Ogilvie	844-1811	Oakville
Glendale Golf Club	Ian Clarke	561-1420	Hamilton
Humber Valley Golf Course	Paul Cluff	741-6573	Toronto
Hornby Tower	Dave Lock	878-3421	Hornby
Hamilton G & CC	Cary Maue	648-2294	Hamilton
Hidden Lakes C. C.	Terry Parker	336-3660	Burlington
Horseshore Valley G. C.	Gar Hamilton	364-9509	Barrie
Highland Golf Club	Michael Silver	(519) 681-8251	London
Hylands Golf Club	Bud Malloy	(613) 521-2411	Ottawa
Islington Golf Club	Jim McKitterick	231-1231	Islington
John Evelyn Golf Centre	John Evelyn	293-7994	Markham
King's Forest G. C.	Dave Shock	547-9042	Hamilton
Kawartha G. C.	Al Hosick	(705) 745-9737	Peterborough
Kleinburg G. C.	Len Diplock	893-1900	Kleinburg
Lambto Golf Club	Dudley Jones	767-2170	Toronto
London Hunt G. C.	Ken Girard	(519) 471-2860	London
Lido Golf Centre	Charles Shields	827-1062	Oakville
Mississauga G. C.	Bill Aldridge	278-5281	Mississauga
Markland Wood G. C.	Ken Duggan	621-3400	Etobicoke
Maple City G. C.	John Dengel	(519) 354-8172	Chatham
Maple Downs	Irv Lighstone	889-4772	Richmond Hill
National G. C.	Ben Kern	746-1020	Woodbridge
North Halton G. C.	John Henderson	877-3363	Georgetown
Norfolk G. C.	Phil Starostic	(519) 426-0606	Simcoe
Port Colborne	Alex Wilson	835-1636	Port Colborne
Roseland G. C.	Tim McCutcheon	(519) 969-3810	Windsor
Scarboro G & CC	Ken Fulton	261-3393	Scarborough
Seaton G. C.	Clayton Cary	863-3822	Pickering
Summit Golf Club	Ron Rayner	884-8621	Richmond Hill
Summerlea G. C.	Graham Gunn	985-2760	Port Perry
St. Catharine G. C.	John Irwin	682-8206	St. Catharine
Sunningdale G. C.	Jim Windsor	(519) 433-5130	London
Thornhill G. C.	Bill Smith	889-4984	Thornhill
Trafargar G. C.	Edge Caravaggio	878-2304	Milton
Thunderbird G. C.	Wilson Paterson	686-1121	Ashburn
Toronto Ladies	Mary-Jane Hall	889-3391	Thornhill
Weston Golf Club	Ken Quiggan	241-8538	Weston
Wyldewood G. C.	Paul Martin	826-0240	Mississauga
Ottawa Hunt Golf Club	Peter Haime	(613) 521-1602	Ottawa
Sorel-Tracy (Club de Golf)	Bob Rousseau	(514) 743-7922	Tracy, Que.
Royal Quebec(Golf Club)	Rod Hout	(418) 822-1805	Boischatel, Que.
Ile Perrot Golf Club	Jim Norris		St. Anne, Que.,
St. Lambert (Club de Golf)	Gord Ross	(514) 671-4515	St. Lambert, Que
Le Chantecler(Club de Golf)	Henri Chatelain	(514) 229-3555	Ste-Adele, Que.
Beauce (Club de Golf)	Vincent Sirianni	(418) 387-5892	Beauce, P.Q.
Cedarbrook G & CC	Jim Lawrie	(514) 438-2731	Ste-Sophie, Que.
Tecumseh Golf Club	Larry McAuley		Gatineau, Que.
Rivermead Golf Club	Brian McLean	(819) 777-4097	Aylmer, Que.

"폭력搜査 앞으로 철저調査"

國會13개 常委 정책질의·답변

"귀금속「通關」 수사않겠다" 답변
"趙 왜 手術즉시 收監했나" 질문

국회는 26일 法司 外務 内務를 비롯한 13개常委를 일제히열고 소관부처의 업무現況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法司委는 趙世衛의 脫出사건을, 財務委는 三寶증권문제등을 추궁했다.

[法司委] 裵命仁법무장관은 답변을통해 『수사과정에서의 폭력은 용납될수없으며 고문을 없애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폭력은 철저히 조사 근절토록할것이며 강제수사를없애기위한 근본적인연구, 검토를해 종합대책을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지난5년동안 폭행과 관련된 瀆職사건으로 입건된경우는 1백87명으로 이중 11명이기소, 처벌됐고 나머지는 不起訴처분이나 기소유예처리됐다』고 밝혔다.

裵장관은 『이러한 폭행사실에대한 수사가 미진한것은 고문이나 瀆職폭행을 근절시키기위한 의지가 부족한점도 있었다』고시인한뒤 『고문은당연한조사실태 즉실적에급급한데서 비롯된 경우도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의 총기사용문제와 관련, 『趙世衛사건의 경우 직무집행상의 지나친행동인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 지나치게 경찰관편의위주로 총기가 사용되는 선례가되지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裵장관은 趙世衛사건과 관련된 피해금품과 관련, 『이들 귀금속의 關稅포탈여부에대한 조사문제를 검토해왔으나 수사력발동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李龍熙 趙正濟 吳制道(이상民正)·高泳耉 朴炳一 金永俊(이상民韓)·申喆均(국민)·李元衡의원(議政)등 고문수사의 근절책과 趙世衛사건, 三寶증권과 財閥기업의 土地재매입사건에 대한 수사등에대해 물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趙世衛이 重傷을 입었는데도 수술이 끝나자마자 수감시킨것은 다른 피고인들이 刑집행정지로 석방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의원칙에 어긋나지 않은가』고 묻고 『피해자가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무거운 求刑量이내려졌고 이때문에 趙가 탈주를 결심했다고 보지않은간』고 추궁했다.

이들의원은 또『趙에대한 경찰의 총기사용의 타당성여부를 수사할 생각은없는간』고 물었다.

◇裵法務, 질문「傾聽」 趙世衛탈주, 고문수사대책, 財閥의 토지買入등을 추궁한 국회法司委에서 裵命仁법무장관이 의원들의질의를 듣고있다.

「國會法」 계속절충

與野 時限불구 對話갖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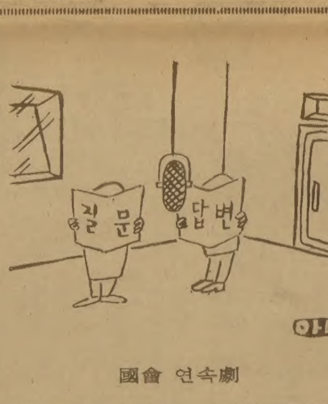
25일 저녁 蔡汶植국회의장이 주선한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3役회의에서도 타결을보지못한 國會法개정문제는 작년 정기국회가 끝날무렵 與野간에 합의한 「4월말 처리時限」을 넘겨 계속 절충이 試圖될 움직임이다.

국회법개정문제는 25일의 3黨3役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계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한데 이어 民韓黨은「4월말時限」을 4일 앞둔 26일 黨務會議를열어 民正黨의 의사를 타진한뒤 다시 이문제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4월말 관철방침을 후퇴시켰다.

民正黨도 이날 中執委常任委를열고 국회법개정문제에대해 현재로서 改正을 않는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없으나 야당과 이문제를 두고 대화를 더 계속하기로했다고 金瑢泰대변인이 발표했다.

民韓黨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측 태도를 검토한끝에 2~3일내에 黨3役이 民正黨측과 개별접촉을 갖고 眞意를 확인한뒤 당무회의나 院內대책회의를 다시열어 이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결정했다.

이로써 民韓黨은 4月末까지 국회법 개정이라는당초의 방침에서 크게후퇴, 時限에 관계없이 국회법개정문제를 계속추진할 움직임이다.



社會漫評
國會 연속劇

주문食單 年內 단계實施

서울·釜山등 6大도시 7월부터
9월엔 10만이상 30개市도

보사부는 26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한식점의주문식단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연내에 단계적으로 전면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7월1일부터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 6대도시에 전면실시하는데이어 9월부터는 인구10만이상의 도시 30개시에 대해서도 시범업소운영을 거치지않고 주문식단제를 곧바로 실시하도록 이날 각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의 시범업소 운영결과 주문식단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것은 성과를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따른것인데 시·도별로 지정된 전통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문식단제에서 제외하기로했다.

보사부는 당초 국민의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음식점의 낭비요인을 줄이기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한식음식점 14만3천1백74군데에 주문식단제를 실시키로하고 현재 5백78개 시범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대부분이 오랜 식생활습관에의해 이를 외면해온 실정이다.

◇全대통령내외가 새마을지도자 研修院 준공식에 참석한뒤 내부를 둘러보고있다. 【崔東完기자찍음】

"北傀제압 理念무장 갖춰야"

全대통령、새마을 研修院·精文硏순시

全斗煥대통령은 26일 상오 京畿道城南市栗洞에 새로지은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준공식에참석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어 하오에는 城南市 雲中洞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방문、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새마을 지도자연수원 준공테이프를 끊고 金準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으로부터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새마을 운동이 국민조직화의중추 역할과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적 향도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자립정신』이라고 지적하고『도시、농어촌등 類型別로 문제해결과 발전방향을 제시할수있는 이론과 실천요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새마을운동이 官주도의 국민운동이되어서는 의식개혁추진에 한계가 있게마련』이라고 지적,『따라서 금년은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는해가돼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위해 노력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새마을운동에서 전시적인것이나 사치성있는것은 과감히 배제돼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날하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柳承國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우리는 南北이 대치해 세계에서 제일긴장된 상황속에서 北韓공산집단과 死活이 걸린 이념·사상투쟁을 하고 있기때문에 北韓을 제압할수있는 철저한 정신무장과 이념및 사상무장을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이를 위해서는 학생을비롯 모든국민에게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이념과사상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공산주의 비판서적이나 교육교재는 평범한 용어들을 사용해 모든 국민들이쉽게 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IPU理事會 개막

서울總會개최 변경없을듯

【헬싱키=聯】남북한간의 대결이 첨예화될 금년 국제의회연맹(IPU)춘계이사회는 25일 상오11시(현지시간)헬싱키도심의 핀란디아·홀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90개 회원국 7백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한가운데 무하니·투오말라 핀란드의원단장의 환영사로 개막됐으며 각대표단은 이날하오에 각분과별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IPU춘계이사회는 차기총회장소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간의 대결로 변모하고있는데 개막식에서 두번째 연설한 에밀레·루벤리에르 IPU이사회 임시의장은 차기총회의 장소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서울에서 열기로한 작년9월의 로마결정을 지지하는 나라와 이를 변경하려는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각의원단은 개막식에 이어 이날하오부터 각분과위원회별토의에 들어가며 이들 위원회가운데는 정치위원회·인권위·교육위등이 있는데 대표들은 28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계속한다.

이번 헬싱키회의에서 남북한대결은 차기 IPU총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작년의 로마회의결정을 북한과 그동조국가들이 뒤엎으려함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장소문제는 오는29일 이번회의 마지막날 열리는 이사회에서 표대결로 결말이 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4일의 집행위원회결론과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된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한국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아세안巡訪 설명 내달에 特使派韓
나까소네 日首相

【東京頻=聯】나까소네日수상은 25일 한국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순방결과를 설명하기위해 오는 5월중순경에 특사를 파견할것이라고 밝혔다.

泰프렘首相 돌연 隱退선언
"次期수상 政黨지도자 選出"

【방콕頻=聯】프렘·틴술라논다 타이수상(62)은 26일 자신은 정계에서 은퇴, 차기수상직을 수락하지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렘수상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총선이후 새로 구성된 타이의회가 이날 1차 실무회의를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것으로 타이정계에 충격을안겨주고있다.

프렘수상은 이날 방콕을 방문중인 빌 헤이든 호주외상과 회담한후 수상실밖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같은 정계은퇴를 발표하면서 타이의 차기수상은자유민주주의 원칙에입각,의회로부터 나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臺灣서도 폭발事故
中央日報건물 파손

【臺北頻=聯】26일상오 11시께 臺灣의 집권국민당 기관지인 中央日報 건물입구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폭발물이 터져 신문사종업원등 10명이 중상을 입고 신문사를 포함한 주변의건물들이 일부 파손됐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이폭발사고로 中央日報의 건물입구가 파괴됐으며 1층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가하면 인근빌딩들의 창문이부서졌고 맞은편에있는 8층의 힐튼호텔 창문들도부서졌다.

서울市 地自制 빠를수록 좋다
孫行調室長

孫守益 총리행정조정실장은 26일상오 국회운영위에서『서울시의지방자치제실시는 실무적으로볼때 빠를수록좋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地平線

지난 20일 하오 광명시 모 국민학교 4년생 백종호군(11세)은 교실 청소중 베란다로 나가 유리창을 닦으려다 높이 10m의 3층창틀에서 떨어졌지만 구사일생으로 참변만은 면했다한다 (한국일보 26일자 11면). 참으로 불행중 다행한일이었다. 백군은 추락되는 찰나 마침 화단에 심어진 높이 50㎝의 향나무덤분으로 그런요행을 잡았다는 것이다. ▼한데 백군의 경우처럼 국민학교에서 실내 소제때 유리창을 닦고 닫고하다가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죽거나 다치기도 일쑤다. 뿐만아니라 교사를 비롯하여 아파트, 빌딩등 건축물들이 고층화하고있는 추세를 따라 추락사고는 어른 어린이 할것없이 해마다 늘어 나고있다. ▼그런즉, 아직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나 체력이 부실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고층 유리창 소제를 시키는것은 깊이 성찰돼야할 문제이다. 설사 담임선생이 지켜보며 시킨다해도 위험성이 도사린 높은 층만은 애들에게 그청소를 맡겨안되리라고 보겠다. 창이란 언제나 사람의 마음, 특히 동심을 사로잡으며 주의력을 이완시키기 쉽다. ▼그래서 비단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험이 곧잘 따른다. 지난81년 서울시내 한 국민학교서는 담임반 어린이를대신 창닦이를 하던 여교사 한분이 떨어져 아깝게 순직한 참사가 있었다. 또 그런 갸륵한 스승의 희생이 있기에 앞서 그 학교에선 두번이나 어린이들의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내의 높은 유리창소제는 성인인 선생님에게도 힘에 겹고 위험한 일이다. 하물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랴. ▼당국은 이참사를 계기로 국민학교 건물의 높은 유리창이나 창틀청소는 용역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에게는 교실바닥과 운동장처럼 사고 위험이 없는 곳의 청소만 하도록 하겠다고말한바 있다. 한데도 여전히 위험한 창문소제가 어린이들에게 맡겨지고 그때문에 사고소식을 또 듣는 것은 마음이 개운치못한 현상이다. ▼앞으로계절은창문을 여닫는 빈도가 높을 더운 여름으로 접어든다. 설마하고 대책을 소홀히 할 계제는 결코 아닐성싶다. 모든학부모들의 근심하는심정을 당로자들은 헤아릴줄 알아야 할것이다.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4:00	화·목·일	18:4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3:3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10:00	수·금·일·월	19:3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50	목·토·일·화	06:0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1:40	화·목·토·월	06:1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30	수·금·일·월	19:3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外務部직원 팀웍에 결함"

——국회常任委 질문·답변

「大盜」피해품 登錄된건가
機密누설 賂物 받은例도

답변 질문

運營委

▲林德圭의원 (국민) 질의 = 자립도가 높은 서울市의 지방자치는 빠를수록 좋다고본는데 행정조정실장의 견해는。사회淨化委는 그 업무가 정부기관과 중복이 많아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본다。건전한 課外는 허용할용의가 없나。

▲鄭男의원 (民正) = 현실에 맞지않는 서울市條例를 얼마나 고쳤나。청소년문제담당을 총리실에서 왜 문교부의 한課로보냈나。무허가 전자오락실이 성행하고있는데 사회정화위에서 이를 없애자는데 반대한이유는。

▲徐淸源의원 (民韓) = 총리가 위원장인 각종위원회가 22개되는데 올들어회의를 한번도 안연곳이 많다。有名無實한위원회를정비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吳上鉉의원 (民韓) = 총리의 지시、시책과관련한 橫的협조가안되는경향이있는데 시정책은。사회정화위의 지역조직은 문제점이없는가。현재 隱密化된 공직사회의 부조리형태는 무엇인가。

▲玄敬大의원 (民正) = 서울市 행정과 관련 실무보좌진의 힘이 부족한것같지않는가。예산과 조례는어떤 절차로 승인되는가。

▲朴寬用의원 (民韓) = 區廳과 소방업체의 문제점이 많다。영세상인에게 바다도방염、천장도 방염처리하고 스프링클러까지 하라는것은 지나치다。정화운동은 이런것부터 정화해야한다。

▲李致浩의원 (民正) = 大邱향군병원은 보사부 등의 사업으로 확정되어 기공식까지 했는데 총리실서 행정조정 명목으로 반려、白紙化됐다는데 이유는。

▲廉吉正의원(民正) = 총리실은 部處간의 갈등과업무조정에 있어서의 대립、예컨대 市와 내무부등의행정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孫守益행정조정실장답변 = 청소년대책위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존속하고있다。

大邱화재때 학교가 다른 高校生10수명이 입장、死傷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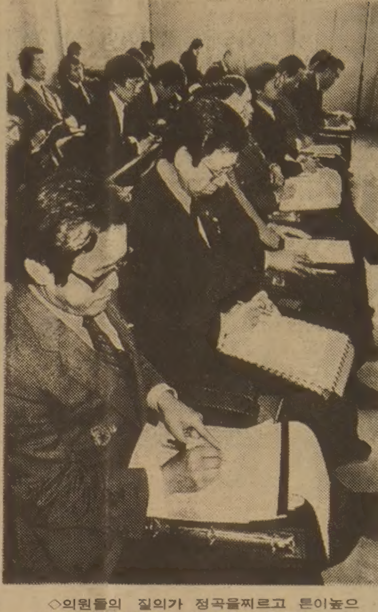
市의예산은 내무부의 자치단체예산지침에 의해 市가 案을마련하고 국회의심의방향과 예산총칙을 존중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상공부와 대도시관리실장으로 심의위를 만들어 총리결재로 시행하고있다。

서울市의 조직、관리 통제의 범주에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金聖基 사회정화위원장 = 淨化委는 직접단속하는것은 아니다。3대否定심리추방이 정착되면 다음은 청소년문제가 과제다。부정課外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있으며 문교부에 정책代案을 찾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淨化조직은부수적으로감시작용도갖고있으나감시를 강조하면부작용이생긴다。

현재 은밀화된 공무원부조리의 형태는 공무원이 특정업체와유착、기밀을누설、뇌물을받고친분을이용、금품을 받는등 세무 경찰 소방 보건 건설분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질의가 정곡을찌르고 톤이높으면 장관들못지않게 답변준비에 열중하는 後席의 局長級보좌관들도 바빠지게된다。【運營委에서】

法司委

▲高泳壽의원 (民韓) 질의 = 그동안 여러차례에걸쳐 고문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문제제기가 돼왔으나 그대책은 강구되지 않았다。이는 국가의 公權力이 묵시적으로 묵인했다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이런 분위기가 다른 일반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尹노파、여대생피살사건수사와 최근의 金根祖씨사건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李沅衡의원 (議政) = 잇달아 발생하는 矯正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은。趙世衡사건으로 피해자중 공직자의 경우 그피해품을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거、등록은 된 것인가。재벌기업의 토지再買入사건수사에 대해 市中에서는 限界수사니 時限수사니 자료수사니 하는 얘기가 나돌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볍다고 보지는 않는가。수사를 중단한 三寶증권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것인가。회사의 고발에 의한 것인가、수사착수 동기와 중단의 이유는。

▲申喆均의원 (국민) = 趙世衡사건으로 비롯된 사회상층부에 보내는 冷笑를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특히 수사의 公權力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피해품과 피해액을 절도범과 절충한 인상을 받고있는데 그경위를 밝혀라。단순절도죄가 가중된다하더라도 趙에 대한 無期구형이 타당하다고본는가。

▲趙正濟의원 (民正) = 趙世衡의 탈주동기를 검찰은 무거운 求刑量과 가정사정등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본인의 시각은 다르다고 본다。趙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품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는것을 봤다면 趙는 우리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엄청난 모순에 도주를 결심했다고 보지는 않는가。趙에대한 求刑量은 피고인에 대한 응징적인 측면을 겨냥한 것인가、예방적 측면을 겨냥한 것인가。혹시 피해자가 저명인사였기 때문에 加重형량이 나온것은아니었나。

▲朴炳一의원 (民韓) = 趙世衡에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해 主務검찰로서 그사용의 타당성여부를 수사하는것이 옳지 않았는가。金根祖씨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수사관할권을 옮기면서도 관할검사장에게 보고를 하지않은것은 수사지휘권의 도전이 아닌가。

정부의 문호개방과 국민의 해외진출확대방침에 편승한 사기횡령등 법범자의 해외도피 방지대책은。

▲裵命仁법무장관답변 = 三寶증권은 작년연말 중앙수사부서가 장부처리에 문제가있다는 첩보를 입수、●최소한의 사실확인에 나섰었다。그러나 전문기관인 증권감독원의 1차조사를 한뒤 수사권을 발동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내렸다。

감독원 조사결과 三寶증권은 79년이래 경기침체로 문제점이 발생했었으나 회사신용을우려해 사건을 은폐해왔다。

그러나 경영주가 私財로 잔고를 보충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22만달러 외화거액유출사건은 지난2월 정부기관에서 對共的차원에서 현지변호사3명등 10여명을 환문해 조사를했다。이뒤 對共용의점은 없었고 일반형사 사건으로 검찰에이첩됐다。

趙世衡을 곧바로 수감한 것은 교도소의무실에서 치료를 해도 지장이 없다는 수술집도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결코 중범자라고 해서 비인도적으로 수감조치한것은 아니다。

李圭光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再수감의생활을 감내키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外務委

▲李世基의원 (民正) 질의 = 국제적인 외교추세는 외교관만의 외교시대는 지났다。국가원수가 작년초 국회연설을통해 太平洋頂上회담구상을 밝힌바있는데 16개월이지난 지금 외무부는 어느정도 뒷받침했고 무엇이 진척되었느냐? 北韓은 80년대 3백만달러、81년에 2천3백만달러、82년 3천1백만달러등 對外원조를 대폭 증가하고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있는가? 아울러 북한의 修交國증가에대한 장단기 대비책은 무엇인가?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올림픽외교계획을 세울용의는。

▲金顯煜의원(民正) = 日本의 假想敵과 한국의 假想敵이 엇갈릴 경우、특히 大韓海峽봉쇄시에 어 해협에서 日·蘇간에 海戰이벌어졌을 경우 한국領海까지도 戰場터가 확대될可能性이 크다。

濟州해협으로 부터 대한해협、南支那해협으로 연결되는 三角海戰의 안전확보를 위해 南洋 南海함대등 우리의 독립함대를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정부의 견해는。

▲李萬燮의원 (국민) = 소련의 極東군사력증강、현재 蘇日관계가 호전되고있는데 [illegible] 세계정세 [illegible]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不和유지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交叉승인체제에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만약 교차승인이 안되면 한국 단독으로 유엔가입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북한이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밝힌 직접 對美 접촉설의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

▲李範錫외무장관답변 = 우리가 제의한 太平洋정상회담은 관계당국이 그구성에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기때문에 조용하고착실하게「그실현을위해 노력하고있다。

北韓이 돈을써가면서 外交활동을 벌이고있으나 우리는 그렇게할생각이 없다。

외부부직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나 팀웍에결함이 많다는지적은 공감하며 이를 가능한한 노력해 시정토록하겠다。

올림픽을 위해 외무부가 나서서 어떤국가를 유치하는 작업등은 외무부의본래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大韓해협봉쇄와 관련、있을수있는假想상태를 연구해 보지 못했다。

외무부에 에스페란토語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메아리

成年

한 平生에 여러고비가 있다。

그에대한 古來의 관념은『禮記』에 잘 드러나 있다。

『人生十年曰 幼、學。二十曰 弱、冠。三十曰 壯、有室。四十曰 强而仕』

사람의 나이 열살이면 幼年이므로 배움에 나아가고、스무살 弱年에 冠禮를 행하여 成人이 된다。서른살 壯年이면 아내를 맞고、마흔살 한창 나이에 벼슬을 한다。여기서 가장 큰 매듭은 冠禮다。그 이전과 이후의 대접이 판이하다。

우리 王朝사회에서 冠禮이전은「童」이요、그 이후는「士」다。그 사이가 확연히 구별되나、그 중간은 없다。그리고 早婚으로 冠禮가 빨라지면서、「童」에서「士」로의 變身은 매우 이른 시기에 온다。역사상의 많은 인물이 早成한 까닭중의 하나가 여기있다고 생각된다。

西洋法制에 따른 20세 成年은『禮記』와 합치하나、그같은 전통에 비추어서는 매우 더디다。대신 새 法制에는 잔 매듭이 많고、매듭마다 법의 규제와 보호、권리·의무가 다르다。

잠시 살펴보아도 그매듭은 어지러울 정도로 잦다。잠시 살펴보자。

뱃속의 아기는 胎兒、땟줄이 떨어지면 갓난이(新生兒)、그뒤 얼마는 젖먹이(乳兒)、여섯살까지는 幼兒。만여섯에 취학하여 兒童、이 때부터 기차표등의반값을 내야하니、비로소「半사람」이다。

그 다음 13살까지는 취업금지、14살까지는 刑事未成年。이 때부터는 경제활동 人口에 들고、여자는 可妊여성으로 셈이된다。통계상으로만「온사람」이다。

다시 여자 16세、남자 18세면 혼인할수가 있고、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다。그 이듬해 18세가 되면 각종면허、공무원 임용、부모 승인없는 취업의 자격이 생긴다。여기서야 겨우 兒童보호법의「兒童」칭호를 벗는다。그러나 아직은 술·담배、유흥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半사람」이다。名實겸맞은「온사람」이 되려면 民法의「20세成年」을 기다려야 한다。

예전「童」과「士」중간에 생긴 이들 잔 매듭은「20세成年」만으로 규제못할 局面이 많아졌음을 뜻한다。그중의 하나가 요즘 청소년의 숙성하다는 일면이다。「20세成年」을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가 이것이다。외국에서도 成年나이를 낮추는 것이일반적인 추세이며、여러나라가 選擧權도 일찌주도록 법을 고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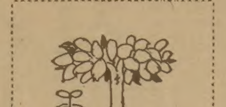
근래 미성년자의 유흥장 출입과 음주금지의 단속기준을「18세이하」로 하리란 보사부 방침(한국일보26일字11면)은、그래서 수긍할수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보사부방침은 食品衛生法의 시행규칙 제19조「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의 ①과 ②、업자는 미성년자의 출입과 술의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미성년자」를「18세미만인者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으로 고친다는 것이다。말하자면「飮酒成年18세」「遊興成年 18세」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보는한、보사부는 무언가 빠뜨린듯 싶다。착각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의 술·담배、유흥장 출입을 금지한 未成年者保護法이 따로있다。이법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거나 유흥장을 출입시킨 업자는 최고 1년 징역을 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大邱 디스코홀 火災뒤 많은 업자가 구속됐음은 연일 신문에 보도된대로다。

그런데 이법에 말한 미성년자는 보사부의 部令(시행규칙)이 어찌 되었건 民法규정에 따른「만20세미만」인 사람이다。그렇다면、部令을 믿고 만19세 청소년을 입장시키고、술을 파는 흥업자가 未成年者 保護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어찌되는가。보사부가 책임지는가。



金昌悅
【編輯委員】

보사부 部令에 언급이 있거나 말거나、유흥업자는 未成年者保護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과 술의판매를 거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형을 받는다。보사부 部令은 이 뜻을 다시想起시키는 주의규정이거나、행정처분의 근거일뿐이다。

따라서 굳이「飮酒成年」「遊興成年」을 낮추고 싶다면、上位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그 경우 法의 개정에는 청소년문제를 감안한 여론의 수렴과 의당한 立法절차가 있어야한다。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部令을 주물럭 거려、「飮酒成年」「遊興成年」의 나이를 손볼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착각이 지나치다。

私見을 말하라면、나는 成年나이 낮추는데 찬성한다。

다만 이 생각은「飮酒成年」「遊興成年」과는 다른次元의 것이다。미국의여러州는 근래들어「飮酒成年」을오히려 21세로 끌어올리고 있다。청소년교통사고 대책의 하나다。곱어볼 경향이다。

또 成年나이를 거론하려면、成年나이를 낮출 때의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함을 생각한다。다른것은 말고、成年나이를 낮추면、選擧權나이도 낮추어야 제격이다。보사부 생각대로 그나이를 18세로 잡을 경우、우리나라 政治風土가 어떻게 달라질것인가 ―이런것까지 생각해야 옳다。成年나이는 나라의 근본인 憲法、民事의 기본인 民法、그밖에 숱한 法에 관계된다。

일이 이만하면、成年나이를 고쳐잡는 일은、오로지 모든局面을 논의해보고、나라로서 신중하게 방침을 정해야할 大事다。그런것을、보사부가 部令을 고쳐 어찌 어찌하겠다는 것은、너무 설익은 發想이다。

記者의 눈

政治議案을 보는 눈

민주정치에있어서 立法 對話 토론 합의등 이른바 정치一般은 어디까지나 國利民利의 바탕에서 이뤄져야한다。

특히 어떠한 정치적 문제나 爭點이 제기 됐을때 이를 풀어나가는과정역시 民利優先이 되어야한다。물론 爭點에대한 토론과정에서 各黨과 政派는 각기 자신들이보는 눈과 處方이 民利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할수있다。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11代국회가 出帆한이래 숙제로 남아온 政治議案에대한 처리여부를싸고 與野가 다른視角에서 뜨거운 攻防을벌이고있다。

與野는 기본적으로 정치의안 즉、國會法개정과 地方自治制실시문제에관해「현재로서는 不可」와「改正요구」로 맞서왔지만 이번의 논쟁은 작년정기국회막바지에 與野총무들의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에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당시 총무들은 政治議案처리에있어「국회법개정은 금년4월말까지 모든문젯점을 검토하여 改正小委활동을끝내기로、地自制문제는「6월까지 중간결론내지 가능하면 최종결론을 내리기로」한 것이다。

이중 특히 국회법개정문제를두고 25일저녁 3黨3役모임에서 與野가 熱띤舌戰을 벌였는데 이날상오「국회법改正小委의 解散요구」라는 背水陣까지쳤던 民韓黨은 총무합의대로 이달말까지 국회법을 마땅히 고쳐야한다고 주장한것。民韓黨은「小委활동종결」은 곧 발전적의미로해석、改正當爲論을내세운것이다。

이에대해 이번국회대표연설에서「政治議案의 개정不可」의 쐐기를 이미 박았던 民正黨은『改正不可도 결론이다』『林鍾基民韓黨총무가 원칙적인합의를 마치 改正한다는것으로 黨에 잘못인식시켰다』고 一蹴했다。

이처럼 정치議案논쟁은 겉으로보면 단순히「合意時限」에대한 解釋논쟁인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民正·民韓양당의 정치議案을보는 視角이 너무나거리가 먼데다 각기 그나름의 戰略과계산이 담겨있음을 느낄수있다。

民韓黨으로서는 要職개편후의 黨內불만을 外遊시키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이번국회에서 정치의안을 내세워 일련의공세를 취하려는것이고 民正黨역시 혹시나 이로인해 뜨거워질지모를 정치過熱을 미리 防火하기위해「改正不可와검토계속」의 兩面刀를 계속활용키로한것이다。

아뭏든 與野는 일단 국회법개정에관해 상호對話와 說得으로 정치懷塞을 미리막자는 전략을 택했지만 정치爭點에있어 결론聖域이란 있을수없는만큼 언젠가는 國利民利의 차원에서 진지한 토론과협의、타결을 지어야할것이다。

【盧稻煥정치부기자】

가다피亡身

武器싣고 "醫療品이다"

브라질、리비아 수송기 貨物압수

분해된 蘇항공기·미사일 쏟아져

美 事前귀띔說속 兩國관계惡化

좌우익세력간의 유혈투쟁으로 얼룩진中南美。이곳의 한 정글지대에날아든 리비아수송기 4대는지난1주일동안 국제적관심을 모은끝에 리비아와브라질의 관계만 소원케하고 가다피에게는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리비아에서 니카라과로 가던중 지난17일 브라질공항에 기착했다가 무기를 싣고있음이 발각되어 1주일간 억류됐던 수송기 4대가 브라질당국에 화물을 압수당한후 수송기와 승무원은 24일 석방됐다。

브라질공군은 좌익의 니카라과로 가던 蘇製일류신 3대와 美製 C130 허큘리스 수송기 1대등 리비아機들에는『의료품』이 아니라 蘇製와 美製 무기 탄약 폭발물등 군수품이적재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한편 브라질의 신문들은 화물속에는 대포와 미사일 그리고 분해된 소련제항공기까지 있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당국은 리비아가 당사국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기를 싣고 영공을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1944년의 시카고항공협정을 위반했기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17일 브라질에 중간기착을 요청할때 리비아측은 당초 의료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통보했으나 군수품을 싣고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브라질당국에 의해 일류신 3대는 아마존 정글지대의 중심부인 마나우스공항에、허큘리스 수송기는 동북부항구도시 레시페 군사공항에 각각 억류되면서 리비아와 브라질관계가 얽히기 시작했다。

◇일단의 브라질軍병사들이 지난23일 마나우스공항에 억류중인 蘇製 리비아수송기로부터 무기와 폭발물들을 끌어내린후 이수송기를 떠나고있다。【마나우스 (브라질) 24일 AP聯合=聯合】

무기가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브라질에 귀띔해준 것이 CIA(美중앙정보국)일것이라는 추측에대해 앨런·롬버그 美국무성대변인은 미국이 이사건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한적이 없으며 브라질정부가 사전에 알려온 일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브라질이 사건처리에 부심하는 지난 1주일동안 브라질주재 리비아대사관원 후스에·아수르는『우리는 이비행기가 조사받지않도록 제반수단을 강구할것』이라면서『양국은 친구인만큼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않는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24일 브라질이 화물을 수색하고 무기를 압수하자 리비아의 가다피원수는『유감스럽다』고 말하고『리비아의 의도는 니카라과혁명을 지원하고 아랍과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에 대항하기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는 브라질은 최대 무기수출대상국중의 하나인 리비아와의 1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비행기판매계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당초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브라질당국은 수백명의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공항주변에 배치하고 5㎞이내에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켰다。그런다음 리비아가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요청을 거부하자 단독조사한후 압수등 조치를 취했다。

브라질 공군장관 델리오·마토스는『브라질은 해적국가는 아니다。그러나 무기운반의 교량도 아니다』라고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조사와 하역과정에서 리비아 승무원들이 협조했고 브라질 공군의 전문가들이 품목별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말했다。

브라질은 최근 수년째 장갑차와 훈련정찰기 60대등을 리비아에 수출해오고있으나 中南美의 좌우익투쟁에서는 우익편에 서고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린것으로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없음을주장하는 미국도 이번일로 리비아가 이지역의 민주정부들을 전복시키려 하고있는 증거가드러났다는 비난은 빼놓지않고있다。미국과 리비아의 대립은 차츰 아프리카와 中東으로부터 무대를 중남미지역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역시 이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해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등은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등 군대의 무장과 훈련을 돕고있다。

반면에 소련을 축으로한 리비아와 쿠바등은니카라과좌익정부 폴롬비아의 M19게릴라단체、엘살바도르의 좌익세력을 돕고있으며 지난해 포클랜드전쟁이후에는 아르헨티나와도 활발하게 접촉하고있다。

【朴來富기자】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아까시아 식당
AKASIA HOUSE (구·KYOTO)

금번 15년의 경력을 가진 일류요리사 김정수씨가 저희식당에서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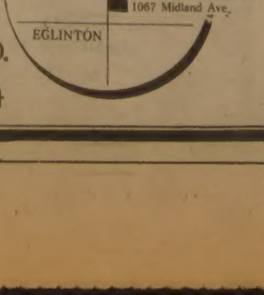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족들, 벗들과 함께 즐기시고 장안의
최고의 맛을 음미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요.

◆일식전문
ㅁ각종 덮밥
ㅁ각종 초밥
ㅁ우 동
◆한식
ㅇ비빔밥 ㅇ불고기 ㅇ갈비
ㅇ된장찌개 ㅇ민어찌개

TAKE OUT SERVICE 간단한 모임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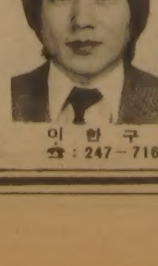
□영업시간 화~금(낮12시~3시까지 · 오후5시~12시까지)
토 낮 5시~밤12시까지
일 낮 5시~밤12시까지

주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전화 : 755-3010
곽(이)순자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GM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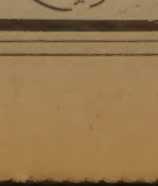
이 한 구
☎ : 247-7161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ㅁ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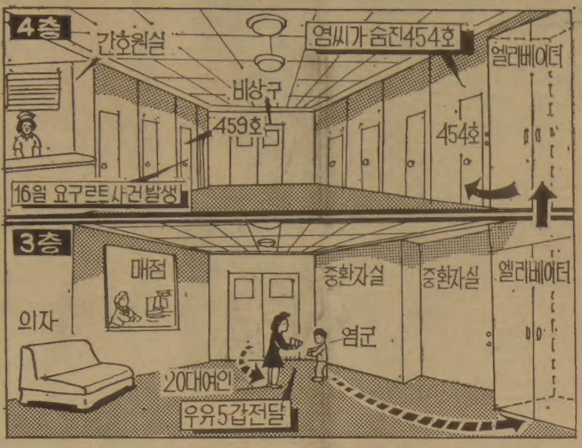


이번엔 病院서「연쇄毒殺劇」

20代여인이 준 우유먹고 교통事故 입원환자 숨져

어제 乙支병원

서울乙支병원에서 음료수를 이용한「연쇄독살극」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첫번째는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었는데 이를 마신 환자가족이 바로 토해 무사했고 10일후에 발생한 두번째 사건은 우유로 이를 마신 입원환자가 숨졌다. 두 사건에서 음료수를 전달한 사람은 모두 20대 여인으로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 아닌가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주변에 얽힌 원한이나 채권 채무를 둘러싼 범행으로보고 수사를 펴는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노린 무동기(無動機)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숨진사람이 채무가 많은데도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든 사실을 중시, 보험가입경위등을 조사하고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3월17일 발생한 서울江東카바레 유산균음료수 독극물사건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카바레 사건때도 40대여인이 요구르트를 맡기고 갔었고 乙支병원의 연쇄사건은 모두 B사제품이었다.



◇우유독살극사건이 일어난 乙支병원4층 (위)과 眞成군이 우유를 전달받은 3층 (아래)의 약도.

우유독살 26일 상오 5시10분께서울 中區 乙支路3街 302의1 乙支병원 454호실에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 廉弼洙씨(37)가 부인 金亮珠(39)가 건네준 우유를 마신직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을 뒤틀며 심한복통을 일으켜 당직의사 李憲씨(29)가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했으나 상오7시50분께 숨졌다.

廉씨가 마시고 숨진 우유는 하루전인 25일 하오7시30분께 廉씨의 장남 眞成군(11·서울文昌국교 4년)이 乙支병원 3층엘리베이터옆 중환자실앞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20대 여인이 아버지에게 가져다주라고 건네준 B사제품 쵸코릿우유(용량1백80cc) 5통 가운데 하나이다.

眞成군에 의하면 이날하오7시30분께 검은색 투피스를입은 23세가량의 서울말씨에 키 1백60㎝, 쇼트커트머리를한 여자가『꼬마야 이리와봐라』라며 접근,『엄마가 입원했니, 아빠가 입원했니, 나는 운전사아저씨부인의 동생인데 바로 너로구나』라고 말해 眞成군이『아빠가 입원했어요』라고 말하자 흰비닐봉지에든 우유5통을 건네주며『아빠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말했다는것.

眞成군은 아무의심없이 아버지입원실에 갖다줬는데 26일 새벽 廉씨가 마실것을 찾자 부인 金씨가 한통을 따서 줬다는것.

廉씨는 지난 3월12일밤 永登浦區大林洞 大林성모병원앞 횡단보도에서 옥성운수소속 서울5사5166호시내버스(운전사 李河松·41)에 치어 좌우쇄골골절로 전치8주의 중상을입고 大林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내세워 수혈을 거부하다 지난3월22일 乙支병원으로옮겨 24일 수혈을 승낙하고 수술을 받았었다.

廉씨부부 숨진 廉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다리가 약간 짧으며 여호와의증인의 신자로 주로 전도를 하러다녔고 생계는 부인 金亮珠씨가꾸려왔다.

廉씨는 江西區新月2洞 482 양지연립15동201호를 세주어 외형상으로는 재산이 많은듯하나 빚이 1천여만원이상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金씨는 화장품외판원으로 생계를 꾸려오다그만둔뒤 최근에는 大林시장안의 E양품점과 L화장품 大林洞지점을 경영하고 있다.

金씨는 남편 廉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보름전쯤 廉씨명의로 1천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보험료를 한꺼번에 불입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廉씨가 大林성모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부인 金씨가 병실에서 간호를했는데 채권자들이몰려와 돈을내놓으라며 소란을 종종 피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江東카바레사건 지난 3월17일 하오10시50분께 서울江東카바레 (주인金二龍·40·江東區千戶2洞425의5)에서 웨이터보조원 申東燦씨(26·서울麻浦區桃花洞417의83)가 여자화장실 거울밑 선반구석에있던 B사제품인 유산균음료수 1병(80㎖)을 마시고 숨졌었다. 이사건이 있은다음날인 18일하오8시20분께도 같은장소에서 독극물이든 B사제품 유산균음료수병(65㎖가정용)이 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나섰으나 26일현재 해결되지않고있다.

열흘전에도 犯行…未遂

앞病室 환자가족에 요구르트전달

農藥냄새…누나가마시고구토 無事

요구르트독살미수 한편 이에앞서 지난16일에도 廉씨의 병실 맞은편인 459호실에 입원중인 崔明根씨(30·상업·서울西大門區冷泉洞71의24)를 간호하고있던 누나 崔英子씨(50)도 崔明根씨와 잘아는 사람을 가장한 20대 여인이 건네준 B사제품 요구르트를 마시려다 농약냄새가나 곧 토해낸 사건이 발생했었다.

崔英子씨에 따르면 이날 낮12시15분께 간호원실로 전화가 걸려와『崔明根씨 누님이냐, 崔씨와 잘아는사람인데 4층 간호원실앞 빨래통에 요구르트를 갖다 놓았으니 崔씨와 환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을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는것.

崔씨는 요구르트를 가져다 자신이 우선 한모금을 마셨는데 갑자기 입이타며 농약냄새가 물씬풍겨 곧 구토를하고 병원측에 연락, 경찰이 문제의 요구르트 16개를 수거해갔다는것.

◇숨진 廉弼洙씨.

◇농약이든 요구르트를 마시다 토해낸 崔英子씨.

문제의 우유 外部서가져와

成分검사결과 毒劇物 검출

수사 乙支路3街파출소에 수사본부를차린 경찰은 江東카바레사건과 숫법이 비슷한 점으로보아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무동기 살인사건으로 보고있으나 ▲乙支병원에 원한을 가진 자의소행▲숨진廉씨부부의 채권채무를 둘러싼 원한살인▲廉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전에 가입한 1천만원짜리 생명보험 가입경위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또 廉씨의 병실에 다녀간 문병객등도 탐문수사를 벌이고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는 26일하오 廉씨가 마시다 남긴 우유를 감정결과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廉씨가 숨진 乙支병원별관에는 3층에 구내매점이 1개소뿐인데 이매점 金모양(20)에 의하면 B사제품은 바나나우유만 팔고 종이봉지우유는 H·S·N사 제품만을 팔고 있다고 말해 경찰은 범인이 우유를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온것으로 보고있다.

乙支병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2동의 병동이 있는데 환자면회시간은 정오부터 하오8시까지이며 각건물1층에 수위가 있으나 문병객들에 대해 특별한통제등은 하지않고 있다.

한편 廉씨의 부인 金씨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李씨의 가족에게 보상금명목으로 1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측에서는 50만원선을 제시해 합의를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셋방사는 母子 흉기맞아 숨져

【仁川】26일 상오 8시께 인천시 中區 北城洞1가4 이성천씨(47)집에 세들어 사는 정순길씨(69·여)와 정씨의 아들 白화룡씨(44)가 머리를 흉기로 맞아 숨져있는 것을 이집 2층에 사는 金상옥씨(5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병아리떼죽음

南原양계장서 3개월간 16만마리

【南原】南原市어현동일대 양계장에서 최근 3개월동안 병아리 16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한것이밝혀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崔奉烈씨(48·南原市어현동218)등 이지역 양계농가 8가구에 따르면 益山郡望城面 새마을부화장과 충남論山市에 있는 삼성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구입, 1개월 가량 키운후 시중에 내다팔고 있는데 지난 1월23일 부터 이들 부화장에서 사온 병아리들이 병으로 각가당 하루 50~1백여마리씩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것.【聯】

「洋食효시」서울역그릴, 플라자호텔로 넘어가

우리나라양식(洋食)레스토랑의효시인 서울역그릴이 플라자호텔로 넘어갔다.

철도청은그릴및열차식당 민영화계획에 따라 그릴및 열차식당사용권을 26일하오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플라자와 롯데등 두호텔이 응찰, 8억2천7백만원을 적어낸 플라자호텔에낙찰된것. 이에따라 플라자호텔은 1년에 8억2천7백만원을내고 서울역및 부산역그릴과 45개의 열차식당을 경영하게됐다.

현재 그릴및 열차식당에는 철도청이 고용한 3백18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중 식당종업원 2백30명은 플라자측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희망에따라 철도청의 다른 부서에 배치된다.

서울역 그릴은 驛舍가준공된 1925년 9월30일 문을열어 우리나라최초의 양식레스토랑으로 해방후까지 독보적인 자리를유지했고 이곳서배출된 종업원들이 조선, 반도호텔등에 스카웃해갔다. 日政때는물론 해방후에도 서울역그릴과 열차식당은 李承晩박사를비롯, 정계거물들이 즐겨 이용했는데 60년대중반부터 고속도로의 개통및 승용차의 발달로 명소로서의 권위를 잃었다.

中部 폭풍주의보 各海上엔 警報

중앙기상대는 26일하오 2시를기해 서울경기및 충청 서해안지방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 예상풍향풍속은 남동후 남서풍 14~1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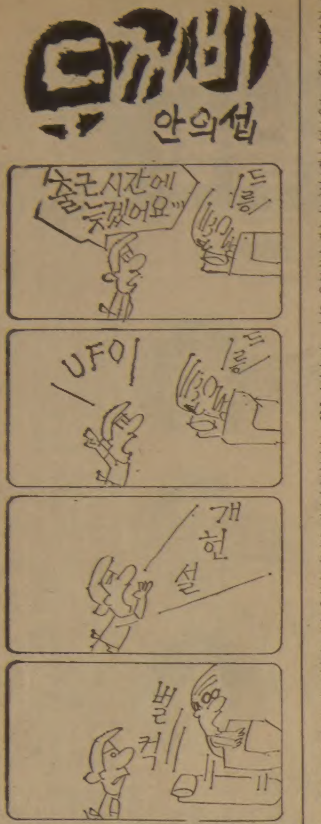
기상대는 또 하오2시를 기해서는 서해일원과 남해서부 해상에, 하오3시를 기해서는 동해 중부·鬱陵島및 獨島해상과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경보를 발표했다.

예상풍속은 20~25m이며 파고는 4~5m.

權力層 빙자 百74件 단속

社會정화위원회는 지난해7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모두1백74건에 2백13명의 권력층빙자사범을 단속한것으로 집계했다.

사회정화위가 26일 국회운영위에낸 자료에 의하면 권력층빙자사범 2백13명 가운데 1백92명이 구속되고 17명을 불구속, 4명은 현재 수사중인것으로 밝혀졌다.



實業高校 무시험 銓衡

내년부터 商高제외, 校長추천으로

내년부터 상업고등학교를 제외한 농업·공업고등학교등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무시험추천제에 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교부는 26일 지금까지 정원의 30%이내에서 출신 중학교장의 추천에의해 무시험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던 농·공·해양·수산등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바꿔 내년부터는 정원모두를 출신학교장의 추천에의해 무시험전형으로 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자가 점차줄어들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문제를 해결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 직업교육의 효과를높이기위해서불가피하다는판단아래취해진것.

이에따라 내년도 입시부터 상업계를 제외한 실업계고등학교지원자는 학부모의 동의서와함께 출신중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고등학교는 면접에 의해서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농·공업계등 실업계고등학교는 정원의 30%선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오히려 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중간탈락자가 없어 고등학교과정의 직업교육에 효과를 보아왔다.

이같은 방법에의해 모집되는 인원은 공업계7만7천명, 농업계2만명등 11만여명이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木浦醫保 國庫지원

保社部 운영비보조금 9천만원 보내

보사부는 26일 보험료징수부진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木浦지구2종지역 의료보험조합을 국고로 지원키로 하고 운영비보조금 9천9백14만4천원을 내려보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木浦의 요양취급기관중 대부분인 45군데가 청구한진료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자 이달말까지 여건이개선되지 않는한 요양기관지정을 반납한다는등 의보참여거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잠정적 조치외에 木浦를 비롯한 5개 2종의보시범실시지역에 임의가입제를 촉진하는등 장기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임의가입제 실시후의 문젯점등의 검토작업이 늦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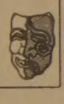
食堂서 가스爆發 行人등 8명負傷

【蔚山】25일하오11시30분께 경남蔚山市 新亭1洞51의18 실비식당 주방에 있던 10㎏들이 프로판가스통이 폭발, 행인 金중인씨(50·부산西區堂里洞)가 중화상을입고 식당주인 유옥연씨(36)등 7명이 경상을 입었다.【蔚】

「거지왕초」

仁川 걸인수용소 善仁院 徐淨子양

女高3년때 因緣…「궂은 봉사」8년



마태복음 6장3절에「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것을 왼손이 모르게하며,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귀절이 있다.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봉사활동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으나「봉사」의 참뜻이 변질된경우가 적지않다. 선행을 지나치게공치레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등등…

그런 의미에서보면 仁川市의 걸인수용소인 善仁院에서 2백여명의 걸인들과함께 파묻혀사는 徐淨子양(28·사진)은 봉사의 참뜻을 되살려준다. 徐양은 8년째 이곳에서「거지왕초」노릇을 하고있는데 말이 왕초지 거지들 뒷바라지를 하는「하인」과 다를바없다. 세탁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준다.

徐양과 善仁院의 인연은 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3학년때 善仁院에 위문을 갔었는데 그때 걸인들이 남이 다못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인상과 함께『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하는 분노를 느꼈다.

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지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음은 물론, 거지들도 갑자기 나타난 아가씨를 반길리가 없었다.

나어린 처녀가 참견한다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도 했다. 뱀을 잡아다 목에 걸어놓고 달아나는 짓궂은 거지도 있었다.

그래도 묵묵히 참았다. 점차 언니, 누나하면서 따르는 거지가 하나 둘 늘어났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어주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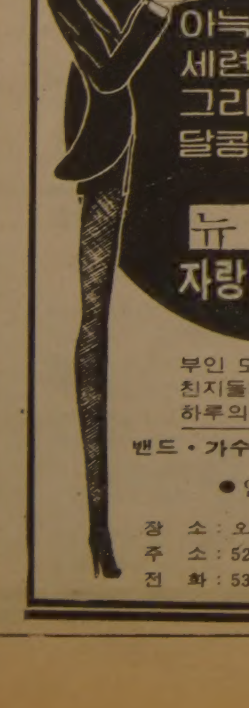
어느날 한 어린거지에게 깨끗한 속옷을 갈아 입혔다. 무슨심술인지 그 거지는 옷을 북북 찢어버렸다. 이순간 기가막혀『가버리겠다』며 울었다. 이를본 어른들이 어린거지를 꾸짖고 徐양을 붙잡았다.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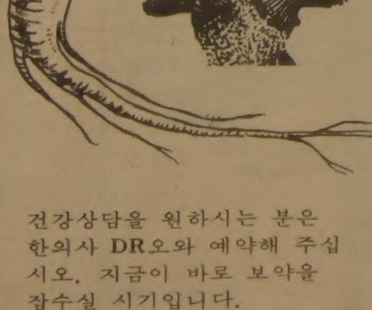
이때부터 徐양은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사회진출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에감화,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같은일이 알려지자仁川市는 2년전부터 徐양에게 15만원의 월급을주기에 이르렀다.

徐양은 월급을 받아도 꽃나무를 심는등 善仁院단장에 사용한다.

徐양과 같은 숨은 봉사자가 많아질때 사회는 밝아진다.

【仁川=崔成基기자】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도매상
FALLIS
스페샬기간
5월14일〈토〉까지
▲각종 Sunpac Juice
24 x 10온스 $7.99
▲Heinz Tomato Juice
24 x 10온스 $6.65
▲Allen's Apple Juice
24 x 10온스 $7.25
▲Y & S Licorice Twizzers
60 x 5센트 $1.65
151 Belfield Rd.
(마틴그로브×401 부근)
☎: 249-8411

長身 유망주들 벤치서 한숨만…

우수選手「학교장추천」問題있다

“教育的차원”주장에 “선택권侵害”로 맞서

선수 본인의 의사가 앞서는가,학교장 추천서가 우선 하는가. 학교장 추천서를 둘러싼 成貞兒 파문이 잠잠해진 가운데 장래성있는 남자배구 장신 유망주 3명이 학교장 추천서를 얻지못해 선수자격을 상실,그들이 선택한 팀서 벤치를 지키며 선수아닌 선수생활을 하고있다. 유망 선수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실업팀에 이적할때 흔히 빚어지는 선수·학교간의 갈등은 배구뿐 아니라 축구·야구·농구등 종목에서도 빚어지는 공통 현상이어서 앞으로 이문제에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측에서는선수들의 미래와 진학지도를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교또는 실업팀에 선수를 보내야한다고 주장하는반면 일부선수들은 선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 또는 코치의 뜻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것은 선수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맞서고있다.

코트에 나서지 못하는 배구선수는 京畿大의 兪炳鍾(197㎝)과 金禹植(196㎝) 西江大의 金潤虎(197㎝)。

이들은 팀의 주전멤버가 될수있는 기량을 가졌으면서도 兪와金은 慶北師大附高,金은 慶北體高의 학교장 추천서를 받지못해 대학선수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

이들외에도 金星의 金贊浩(188㎝) 現代의 金惠貞(173㎝)등 두 남녀선수도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하지못해 실업선수 자격을 갖지못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지못한것은 선수들이 지망한팀과 학교에서 추천한팀과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兪炳鍾·金禹植·金贊浩등을 배출한 慶北師大附高서는 서울市廳을 추천했고 慶北體高는 金潤虎를 成均館大에,慶北女商은 金惠貞을 曉星에보내려 했었다.

선수등록때 학교장 추천서 첨부규정이 만들어진것은 지난80년 실업선수 선발규정이 드래프트에서 현행 자유경쟁제로 바뀌면서 당시 배구협회 朴璟遠회장이 학교장및 재단이사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도화했다.

당시 학교측에서는「학생들이 장래를 결정하는데 올바른 진로를 잡아주어야한다. 추천서없이 선수본인의사로 진로를 결정할 경우 선수들이학교의사를 무시하는등 교육적 차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이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고교서는돈을 많이 내는 팀으로 선수를 보내려하는경향이 없지않아 몇몇여고팀은 한선수를놓고 몇개 실업팀에게 경쟁을 시켜 더많은 육성금을 타내려 했다.

고교에서 졸업선수들을 대학및 실업팀으로 보내고 받은 육성금명목의 돈이 고교팀육성에 전액 쓰여진것인가 하는 의문도 일고있다. 물론 선수육성에 전념하고 국가대표로 발탁되는데서 큰보람을찾는 학교도 있다.

「교육적 차원」과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생겨난 추천서제도가 부작용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배구선수들은 이미 국가대표 선수경력을 가졌거나 국가대표로 뽑힐 유망주들이다.

【金仁奎기자】

◇金禹植

◇金贊浩

◇兪炳鍾

大學배구연맹전

西江大、4強에

慶尚大제압…成大도 합류

西江大가 강호 慶尚大를 3-0으로 제압하고 팀창단이후 두번째로 전국대회서 4강에 진출했다. 81년 3월 팀을 창단한 西江大는 그해 5월 馬山서 열린 종별배구선수권대회때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당시는 출전팀수가 적었으므로 이번 대한연맹전 4강진출은 값어치있는 실적이다.

26일 장충체육관서 속개된 대회7일째 남대부준준결승전에서 西江大는 韓尚奎의 블로킹과 黃仁哲 裵仁善의 강타로 慶尚大에쾌勝,京畿大와 준결승전서 격돌하게 됐다.

成均館大는 단신 공격수 車海元(181㎝)과 국가대표 선수출신의 3년생 金相保 洪基澤이 활약,서울大를 스트레이트로 제압하고 27일 仁荷大와 준결승전을 벌이게됐다.

◇준준결승전적

관성 대균 3(15-8 15-12 16-14)0 대서 학울

대서 학강 3(15-4 15-12 15-10)0 대경 학상

국민대 69-57 홍익대

▲남고부A조 광주고 87-65 삼일실

▲동순위＝①광주고2승②삼일실고1승1패③인천체고2패

▲동B조 배재고 70-65 계성고

▲동순위＝①마산고2승②배재고1승1패③계성고2패

▲남중부리그전 토성중(1승) 32-24 계성중(1패)

▲여중부A조 혜화(2승) 58-54 삼천포(1승1패)

▲동B조 목포(1승2패) 33-31 옥천(3패)

동주(3승) 46-33 효성(2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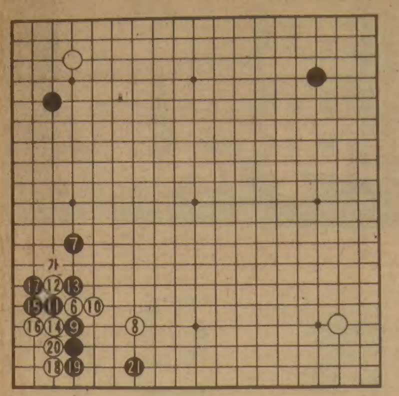
▲남자일반부 삼성전자(1승) 92(38-34 54-35)69 한국은행(2패)

▲여고부A조 삼천포여종 96-31 고려여고

▲동순위＝①삼천포여종2승②부산혜화여고1승1패③고려여고2패

◇“블로킹이 먼저다” 서울大 尹成官⑬의 강타를 成均館大 姜泰求와 姜和守가 콤비블로킹으로 저지하고있다。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2譜 6～21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 秀 英〈3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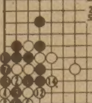
黑(6段) 徐 能 旭〈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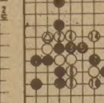
徐6단의 호전적 기풍은 정평이 있지만 이바둑처럼 포석초기에 거세게 덤빈일도 드물다.

黑7에 대해 白8을 두어놓고, 黑이 당연히 10자리에 붙일것으로 예상했던 張6단은 黑9、11、13을 계속당하자 의표를 찔린듯 이 어리둥절하다가 白10、12를 3분씩 소비하며 신중하게 두었다.

白14는 18분간 고심한 임기응변의 강수。그러나 이수는 白「가」로 뻗어야 유리했다는 중론이다。

強手로 맞서다


참고2도


참고1도

참고1도의 黑1에는 白2이하 10으로、黑11을 종용하고 白12면 黑13으로 위협해도 白14가 안성마춤이다。白18에는 黑19、21이 최강。19로 참고 2도의 1、3은 이하 白8때 黑9로 3자리를 먹여 白10으로 5자리에 따내게 한다음 11이하 15를 3자리에 두어 白3점을 따내면 白16으로 2자리에 되따내게 되어 黑이 성공인것 같지만 실상은 불리한 결과라고 한다。【一凡】

張吉山 <1726>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6)

과 서로 안부를 물었다.

『여기가 얼마나 좋아。구월산·소나무 잣나무 냄새에 절로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먼。강령이야 갯가라서 온통 뻘바탕이라 풀은 짜지,바람은 끈끈하지,나무는 커녕 갈대 몰풀만 키 넘게 자라는걸。그저 굴 따고 조개 주워먹는 맛으로 나불여 살지』

사설을 살던 광대의 아낙 하나가 눈물을 찍어내며 말하였다。

『그래 원향이 자네가 탈고개 만신네 뒤를 이었다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겸사겸사하여 우리 계서는 죽은 이들 넋걷이라두 해주려구 이렇게 몰려왔지。우리네야 동철 밖엔 어디 집에 붙박혀 있을수가 있어야지』

『저 혼자 동네로 돌아와 이날까지 이골 혼백들 모셔놓구 신당에 빌었지요』

『그래 고맙다。원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고』

『맞이굿 하기전에 제일 먼저 해원(解冤)굿부터 해줍시다』

『가만있자。이집이 누구네 집이었지。오라 그러고보니…』

아낙네는 울음을 먼저 터뜨렸다。

『얼룩네 집이 아녔어。그집 식구가 길로 나오다가 칼에 맞아 질질 끌려갔다지』

울음을 터뜨린것은 아마도 얼룩네 이라는 광대의 식구들 때문이 아니라 집 잃고 가족 잃은 원한 까닭일 것이다。옆에 섰던 이들이 제각기 등을 두드리고 달래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전선달이도 사선끌 패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살아 있었구먼。하긴…우리두 얘기는 들었네。이쪽이야 갯가라지만 그래두 해서의 읍 안인데 자네들은 삭녕까지 끌려갔다니 얼마나 고생이되었나』

『고생이야 뭐 팔도 어딜가든 고생길이지요。저희는 이제 자리를 잡았읍니다。거기 장군사라고 절에 의탁이 되어 걸립도 돌고 행상도 다닙니다』

『어디 두고보세。우리가 이대로 늙어죽나。저희들이 망하나。여기살제 우리두 어엿하게 역을 진 백성이었어。오랑캐나 왜인들에게는 꿈쩍도 못허고,갯가에 황당선이라두 와보게。쌀 달라면 쌀주고 물달라면 물주고,그뿐인가。당왜화를 주고받으니…。그저 우리네 같은 천덕쇠들은 함부로 때려 죽이고 내쫓아도 된다 그말이지。제 식구나 새끼들 때려잡는 가장(家長) 치고 밖에 나와 사내 구실 하는놈 못봤네』

전선달이도 한탄 수 없이 강령서온 광대를 달랬다。

『자,아저씨。그러니까 우리가 옛말두 하구 포한두 잖아 보자구 이렇게 모이지 않았읍니까』

『암,잖아야지。잖아야하구말구』

『저어기 풍류계 춤대하는 오계손이라구 전에구월산서 모가비하던 아저씨 아시죠?』

『아다뿐인가。오박수 해서에서 모른다면 아예 장인이 아니여』

그들은 떠들썩하게 여기저기서 안체를하면서 손님방으로들 들어갔다。아낙들은 국밥을 날라주느라 정신들이 없고,오계손은 제의 좌장들과 굿준비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땅끝에서 오다

迷惑의 시대 ⑦

金成一 作 <43>

현사는 매우 귀찮다는 듯이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청년이 죽은 것은 밤 열 두시부터 한시 사이라고 하셨는데요。그것이 어느날 밤이었읍니까?』

『정말 당신 모르고 있는거야?』

『모르니까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제 저녁 6시20분 나리따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분명히 일본에 있었고,그에 대하여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음으로 피의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읍니다。다만 제가 한가지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호는 차츰 냉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말씨가 침착해지고 있었다。현사는 그러한 준호의 기세에 다소 놀랐는지 입을 열었다。

『크리스머스날 밤이야。정확히 말해서 12월24일 자정부터 25일 01시 사이에 그 청년은 살해당했어』

『네?』

준호는 깜짝 놀라며 현사를 쳐다보았다。12월24일 밤이라면 저 문 영실이 그에게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그래,당신이 제공하겠다는 정보는 어떤거요?』

현사의 말씨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었다。그날,동경과 서울 사이에는 두번의 통화가 있었다。하나는 문 영실이 준호에게 걸어온 전화였었고,또 다른 하나는 준호가 문 영실에게 건 전화였었다。시간은 첫번째 통화가 알 수 없는 사나이의 제지에 의해 끊어진 것이 1시 3분 전이었다。그 때 일부러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준호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는거요?』

『잠깐만』

준호는 현사의 재촉을 막으며 뭔가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사들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 뭔가 기대할 것이 보이는지 담배를 꺼내어 준호에게 권했다。준호가 그것을 뽑아들자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는 것이었다。준호는 아직도 뭔가 남아 있는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크리스머스날밤,문영실은 동경의 제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왔읍니다。선생님들께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선 비밀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면 문 영실과 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좋습니다。수사도중에 노출되는 개인적인 비밀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경찰관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문 영실은 제 누이동생의 친구였고 리진물산 회장실의 비서였읍니다。저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하여 수차의 데이트까지 가진바 있었지만 결국 제 어릴때부터의 친구였던 이 세원에게 그녀를 빼앗기고 말았읍니다。아시다시피 이 세원은 리비아에 주재중이었고 그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읍니다。그런데 그녀가 그날 밤 동경에 있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문 영실이 당신 아파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읍니까?』

Ontario

ONTARIO ENERGY BOARD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

온타리오·하이드로의 84년도 전력요금 인상안에 관한 공청회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법 37조에 따라 온타리오 하이드로의 요금인상에 관한 공청회를 83년5월31일(화) 상오9시 14 칼톤·스트릿 8층 소재 위원회의 공청회실에서 갖는다.

위원회는 83년4월18일 참가희망자 통고와 증거물 제출및 예비공청회 날자에 관해 공고했다.

공고의 사본, 온타리오 하이드로요청서가 붙은 에너지장관의 참고서류및 본 공청회공고는 연간 5천킬로왓트 이상의 전력을 쓰는 공장 수요가들, 시정부, 시에너지위원회등 에너지법 37조1항에 의한 온타리오하이드로 고객들에게 송부됐다.

기타 이를 원하는 분은 위원회 서기로부터 받을 수 있다.

비공식적인 예비청문회가 83년5월18일 하오2시 위원회공청회실에서 열린다.

꽤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공청회 절차, 증거물 제시등을 사전에 정하기 위한 것이다.

온타리오 하이드로는 요금인상요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4월19일까지 제출했다. 위원회 지시에 따라 하이드로는 고객들과 특별요청자들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서류사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사본과 증빙서 사본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자에게는 무료로 지급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비용을 부담하면 하이드로회사 본사(700 University Av.)에서 동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서류사본은 하이드로회사 본사 또는 베리, 벨빌, 해밀튼, 런던, 노스베이, 선더베이, 노스욕 소재 지사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참석 희망자는 83년5월17일(화) 이전까지 이같은 의사를 서면으로 위원회 또는 하이드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면은 관심가진 분야및 성격, 거론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리 참가자 이름,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 서면은 아래 장소로 가져오거나 우송할 것.

Board Secretary
Ontario Energy Board
14 Carlton Street, 9th Floor
Toronto, Ontario
M5B 1J2

and

The Secretary
Ontario Hydro
700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M5G 1X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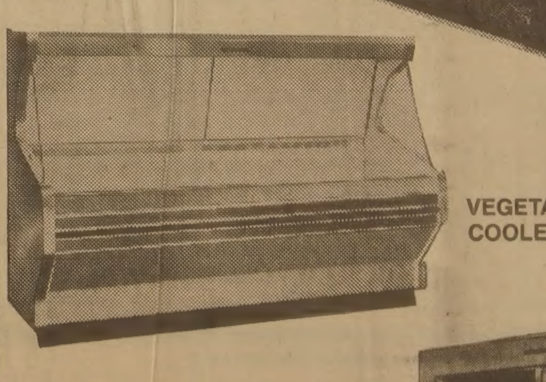
참석희망자 또는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자는 이를 문서로 작성, 12통의 사본을 만들어 83년5월26일(목) 이전까지 위원회 또는 하이드로에 보내야 한다.

그는 또한 하이드로의 고객및 공청회 참석희망자에게도 사본을 보내야 한다.

참석 희망자가 공청회에 불참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는 다시 이 공청회에 참석치 못한다.

1983년 4월18일

ONTARIO ENERGY BOARD
S. A. C. Thomas
Board Secretary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GENERAL REFG. LTD. DEALER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성산바자회

□때 : 1983년 5월7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곳 : 성산교회
1384 WESTON RD(at 1239 Jane St.)

◇품 목◇

※점심(만두국·짜장면·국밥) ※떡종류
※[illegible]류 ※조미료 ※굴비·동태
※김치·고추장·된장·오징어 젓·창란젓등 밑반찬
※카네이션등 화초

성산교회 여전도회

Angel Fine Art Studio

어린이 여름교실안내

July	4- 8 ( )	Drawing & Painting	Age 5 -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 -14	1:30- 4:30
	11-15 ( )	Drawing & Painting	5 -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 -14	1:30- 4:30
	18-22 ( )	Drawing & Painting	5 -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 -14	1:30- 4:30
	25-29 ( )	Craft Week	Age 5- 9	9:30-12:30
	( )	Craft Week	10-14	1:30- 4:30
August	1- 5 ( )	Drawing & Painting	Age 5-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14	1:30- 4:30
	8-12 ( )	Drawing & Painting	5-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14	1:30- 4:30
	15-19 ( )	Drawing & Painting	5- 9	9:30-12:30
	( )	Drawing & Painting	10-14	1:30- 4:30
	22-26 ( )	Craft Week	Age 5- 9	9:30-12:30
	( )	Craft Week	10-14	1:30- 4:30

2428 Islington Ave. 749-8013(스튜디오)
Suite 7A
Rexdale, Ontario 745-8236(R) 조혜미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모국연예인 초청 쇼

톱크라스
모국 연예인출연
유서깊은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에서

□일자 : 5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교
CONVOCATION HALL

(칼리지×세인트・죠지 Kings College Circle)
(약도참조) 콘보케이션 홀

A석 $15 / B석 $12 / C석 $10

시내 각 식품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한국 최고의 코메디안
"무언가를 보여 주겠읍니다."
"못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그래머 가수
"네가 좋아"
이은하

"진정인가요?"
메들리의 여왕
김연자

이 용

선풍적인 인기의 그룹사운드
호랑나비

□주변에 충분한 파킹장
□지정좌석제
□어린이동반금지 (10세 미만)
□카메라・비데오촬영금지
□카셀금지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라메 관광.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649A BLOOR ST. W. TOR. ONT.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한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명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회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리셉셔니스트 구함.
영문편지와 영어회화에 능통한자.
전화 : 961-7100. 박종수태권도장. Mr. 박 or 모니카.

24세 미만 가게에서 일할분 구함.
유경험자 환영, 남녀 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지령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2 Bedroom 아파트와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
매니저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현금지불
전화 : 654-6628 Mr. Tommy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실 리셉셔니스트구함.
영어, 국어를 잘 하시고 영문타이핑을 할수 있는 분.
전화 : 961-2417. Mrs. 최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438-0921 Mrs.유(오후3시이후 전화요망)

책임있는 가게 풀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B)438-6440, R)284-8862

주말 Store 헬퍼 구함.
전화 : 231-7944 오전중 연락요망

입주하셔서 아이들 돌봐주실분 구함.
오후5시 이후 연락요망
전화 : 276-6911 Mrs. 윤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세살, 일곱살) 돌바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Victoria Pk×Eglington. E.
전화 : 752-1467(낮 12시이후)

일본요리사, 웨이트레스 급구.
Nam Kang Restaurant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주 7일 일할분.
1370 Queen St. E. 꼭 내방바람.

살림 돌봐주실 분 구함.
입주나 출퇴근.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6-0787. Mrs. 손.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입주하셔서 가족같이 지내시며
애들(3세, 5세 여아) 돌봐주실 분
월 $500 전화 : 741-9575

경험이 많은 캐쉬어와 헬퍼 구함.
68 Yonge St. LULU 카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여 권 분 실

정일원(Jung Il-Won)
1128644(여권 No.) 1948년 11월20일 방문여권
4월 15일 3PM Eglinton Laird지역 분실. 전화: 421-1089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매 매

Flower & Plant Shop 급매
서쪽끝 좋은장소, 리즌어블 PRICE
전화 : 762-2182 오후7시이후 270-7066 Mr. Mester

빵가게(Bakery) 매매, 프라자내 있음.
아스킹 $189,000(도구포함), 리스 5년.
Dufferin & Steeles. 전화 : 745-7551(Susan)

GIFT STORE(선물가게) 매매, 큰 Mall안에 있음. 리스 1992년까지 + 10년옵션가능.
전화 : 633-7479.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베미·더타취 벽돌집매매(Montrose & Bloor St.W.)
코리아타운근처. 3Bed Room. 이층집. 완전수리. Parking Lot있음
Asking $99,000. B)596-8681. R)465-1753 Mrs. Chao

Convenience Store 매매. 영 & HWY 7.
새프라자내. 아스킹 $39,000 + 스탁.
리스 5년 + 5년. 전화 : 492-9031(Mr. Tam)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가게달린 집건물을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Sacrificed Pric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집과 가게건물을 함께 매매, 혹은 리스코저함.
아스킹 19만불. 7만불 다운.
전화 : 266-795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6,000불. 리스5년($650/M) +5년($780/M). 현재 월 Rent $580. Plaza안에 있음.
지역. Hamilton 전화 : 1-528-3986 Mr.리 1-389-7755 Mr.차

햄버거숍 다운타운 주 $5,000
8개월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568 Yonge St. 전화 : B)921-2941 R)677-3537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그로서리가게 매매. 해밀톤시내
건물 포함.
전화 : 1-523-588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오픈한지 1주일된 Store 매매.
아스킹$19,500. 오샤와지역.
전화 : 1-623-4557.

버라이어티스토아 건물 포함 매매
주매상 : $4,000 Hamilton
전화 : 1-529-0018

햄버거숍. 다운타운(568 Yonge St.) 주매상: $5,000
8개월만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전화: (B)921-2941, (R)677-353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전화 : 844-1583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비데오 핀볼 아케이드 매매
짧은 시간, 좋은 수입, 옥빌지역
전화 : 842-6195

상업용건물 매매. Lansdown & Wallace.
3 Bed Room(2층건물, 차고2개)
전화 : 532-9203(오전 9시~12시사이)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교통이 편한 Luxury 아파트 써브렛.
Large 1 Bed Room(언제든지 입주가능함)
191 Sherbourne St. 전화 : 368-8138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촌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와~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하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한밭식품
제6주년기념 사은 대매출

최고인기의 선학쌀을 교민여러분께
최저의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굴비용 노랑태 햇조기 $39.95
($50이상 쇼핑하시는 분께)
쌀·라면·참기름제외

▫알배기동태 $44.95
50LB

◎굴비 3마리포장	$3.95	
◎일본 오뎅셀	2.99	
◎해태찹쌀고추장	5.95	2.2LB
◎중국당면	99¢	(8온스)
한국당면	2.49	(16온스)
◎통갈비LB당	1.49	
(아주 FRESH함·무제한 세일)		
◎물오징어	89¢	

고국상품 대량입하 고급여자샌달(여름용) 카셋, 서적등 염가봉사

※주문배달 / 각종 음료수(COKE, PEPSI, CANADA DAY등) $5.99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제2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 야구대회

□ 때 : 1983년 7월2일(토) 낮12시
1983년 7월3일(일) 아침9시
□ 곳 : CENTENNIL PARK 야구장
□종목 : ①어린이부~만12세 미만
②소 년 부~만14세 미만

〈소년부〉경기 신설!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금) 오후7시(한국일보 본사)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박재선(755-6434)

※공은 소프트볼 사용(11인치)
※투구는 언더드로우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 것임.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